

1930년대 중국의 설탕 전매와 홍콩 태고당방(太古糖房)

— 대공황에서 살아남기 —*

강진아**

目次

머리말

- | | |
|-----------------------------|-----------------------------|
| 1. 광동성의 제당업 건설과 홍콩 태고당방 | 2. 전국 설탕전매와 홍콩 태고당방 |
| 1) 중국의 관세 자주권 회복과 설탕 시장의 변동 | 1) 광동당의 상해 진출과 전국 설탕 전매의 추진 |
| 2) 광동성의 성영제당창 건설과 설탕전매 | 2) 태고당방의 대응 전략 |
| 3) 태고당방과 광동 설탕 전매 | 3) 양광사변 이후의 광동성 제당업 |
| | 맺음말 |

머리말

이 글은 1930년대 대공황과 시장 블록화의 환경 아래에서 홍콩의 대표적 정제당 회사였던 태고당방의 생존 전략을 다룬다. 홍콩 태고당방은 근대 동아시아 설탕 시장의 유력한 공급자였으나, 최대의 시장은 중국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1928년 12월 염원하던 관세자주권 회복에 성공하였다. 이듬해 남경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는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본격적인 보호 관세 하의 수입대체공업화를 추진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타깃이 수입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050). 세 편의 심사 의견서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적으로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충분히 논지와 분량을 압축하지 못한 것은 지적이 타당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필자의 고심에도 조화로운 압축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꼼꼼한 열독에 깊이 감사드린다.

**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1, 2위를 나란히 달리는 면포와 설탕이었다. 하지만 수입대체공업화는 새로 집권한 남경국민정부의 행정력이 전국적으로 미치지 못하였던 탓에, 중앙정부와 각 지방 성정부 사이에서 분산적이고 경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입대체 산업화를 내건 제당업 건설은 군벌 정권 하에 있던 광둥성에서 성영공업화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홍콩당은 세계 원당 기지 2위로 성장한 자바 원당을 수입하여 정당으로 가공하여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으로 1880년대에 급성장하였다. 단기간 내에 동아시아 지역 내 최대의 정당 산업기지로 성장한 홍콩당은 역내의 정당 시장을 독점했다. 중국과 일본은 그 주력 시장이었다. 그러나 1899년을 전후하여 일본이 관세자주권을 회복하여 보호관세로 수입을 막고 대만 식민지 원당-일본 본국 정당의 수직적 산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입대체 산업화에 성공하자 20세기 들어와서는 중국 시장에 매진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정당은 1905년 이래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중국 시장을 둘러싸고 일본당과 홍콩당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바당까지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일본당과 홍콩당을 압도했다. 1929년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수요 급감, 과일 생산과 덩핑을 야기해, 세계 설탕 가격은 폭락했다. 아시아 역내의 제당업계는 그나마 남아 있는 유일한 “자유시장”이었던 중국에서 치킨게임을 벌였다. 하지만 역시 같은 해인 1929년에 중국이 관세자주권을 회복하면서 이제 세계 각 지역은 자유 시장은 사라지고 통제 시장만이 존재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블록 경제의 확산이었다.)

필자는 1996년과 1999년에 중국 광둥성정부가 주도했던 근대적 제당업 건설과 설탕 판매, 1935년 남경국민정부의 설탕판매를 중앙과 지방, 일본과 자바당의 경쟁, 보호관세와 밀수와 관련지어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다.)²⁾ 근년에 출간된 일본학자 히라이 켄스케(平井健

1) 근년 제당업과 설탕에 대해서는 한국과 해외에서 연구가 크게 늘었다. 한국사 분야에서는 이은희의 연구(『근대 한국의 제당업과 설탕 소비문화의 변화』, 2012년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설탕, 근대의 혁명』 지식산업사, 2018)를 꼽을 수 있고, 중국사학계에서는 정영구가 역시 중국 해관자료를 이용한 설탕 교역 네트워크에 관한 정량적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정영구, 『1864~1930년 중국의 설탕유통연구, 2016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864~1904년 중국 설탕시장의 성격 - 『中國舊海關史料』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1, 2015; 『개항과 전통시장- 1880년대 이전 중국의 설탕시장 -』, 『중국근현대사연구』 76, 2017; 『전통중국의 설탕-면화교역과 근대세계체제-』, 『동양사학연구』 139, 2017; 『1902~1930년 중국 백설탕시장의 성격-』, 『중국사연구』 121, 2019 등 활발한 저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홍콩 제당업과 동아시아 제당 시장에 관한 전문 학술저서의 출판도 활발하여, 앞서 히라이 켄스케의 저서 이외에도 鍾寶賢, 『太古之道-太古在華一百五十年』,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2016; 杉山伸也, 『日英經濟關係史研究 1860~1940』,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Robert Bickers, *China Bound : John Swire & Sons and Its World, 1816-1980*, Bloomsbury Business, 2020 등의 출판을 특기할 만하다.

2) 姜珍亞, 『1930年代廣東陳濟棠政權の製糖業建設』, 『近きに在りて』 第30號, 1996; 강진아, 『1930년

介)의 저작 『설탕의 제국 : 일본 식민지와 아시아시장』은 남경국민정부의 설탕전매에 한 장을 할애하고 있어 큰 흥미를 가졌다.³⁾ 이 책은 아시아 설탕 시장과 일본 제당업에 관해서 일국사를 뛰어넘는 혜안을 가지고 치밀한 정량 분석과 이론화를 시도한 훌륭한 저작이다. 다만, 일본제당업이 주인공이다 보니 중국 시장에 관한 이해도와 서술에는 오류나 단순화가 다소 있다. 이 책에서는 남경국민정부의 설탕 전매를 일본 제당업계의 보고서와 재증영사관 자료, 중국 현지 신문을 통해 분석하여 1935년 6월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도 더 빨리 그리고 1937년 전쟁 발발 전까지, 심지어 1947년까지 이 논쟁은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 전매 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부의 연원과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파악해야하는데 그 점은 사실상 누락되어 있다. 1999년의 필자의 논문 역시 중국어 신문 및 자료 이외에 일본 영사관자료를 중요 사료로 하고 있어서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

한글 논문은 세계학계에서는 읽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체념할 수밖에 없으나,⁴⁾ 마침 1930년대 홍콩제당업에 관해서 논문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이전 본인의 연구에서도 놓쳤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홍콩최대의 정당 회사였던 태고당방(太古糖房) 자료에서 거꾸로 중국의 제당업 건설과 전매 정책을 글로벌한 좌표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신문 자료와 구술 자료 및 관방자료에서 얻을 수 없었던 생생한 1차 자료가 대량으로 이용 가능해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런던대학 SOAS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스와이어 당안(the Swire Archive)을 분석하여, 1930년대 중국 시장의 통제경제화와 이를 둘러싼 홍콩당, 일본당, 자바당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광동 제당업 건설의 의미 역시 새롭게 평가해보도록 하겠다.⁵⁾

중국의 경제개발에서 나타나는 성과 중앙-「廣東糖」의 상해진출과 남경정부, 백영서 편, 『중국근현대사의 재조명1』, 지식산업사, 1999; 강진아, 「20세기초 동아시아 시장과 중국 제당업」, 『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질서의 해체』, 청어람미디어, 2004; 姜玠亞, 「20世紀初的东亚市場和中国製糖業」, 『近代中國-經濟與社會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06; 강진아,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사탕의 유통구조와 변동-조선화상 동순태호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52, 2011; 姜玠亞, 「从朝鮮華商同順泰文書来看近代潮州糖品的流通」, 陈春声, 陈伟武 主编, 『地域文化的构造与播迁:第八届潮学国际研讨会论文集』, 中华书局, 北京, 2012.

3) 平井健介, 『砂糖の帝国 : 日本植民地とアジア市場』, 東京大學出版會, 2017.

4) 특히 히라이는 1996년 필자의 일본어 논문을 선행연구로 소개하면서, 재정재건 대책과 산업보호 정책만 살펴본 선행연구와 달리, 본인은 동아시아 설탕 시장이라는 광역적 시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平井健介, 2017년, 121쪽), 필자의 한글 논문(1999년, 2004년), 중국어 논문(2006년)은 정확하게 동아시아 시장 변동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언어의 장벽이 참으로 아쉽다.

5) 중복 서술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광동성의 제당업 건설 자체와 중국 내 설탕전매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서술을 최소화하려 한다.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1996년, 1999년 논

1. 광동성의 제당업 건설과 홍콩 태고당방

1) 중국의 관세 자주권 회복과 설탕 시장의 변동

주요 설탕 수출국이었던 중국은 1890년대부터 수입이 수출을 압도하더니, 1929년에는 약 90만 톤, 은 1억 량을 수입하는 아시아 최대의 설탕수입국으로 전락했다.⁶⁾ 설탕은 수입총액의 8%를 차지하여 면사를 이어 2위를 차지하는데, 당시 중국 시장은 홍콩당, 일본당, 자바당이 주로 경쟁하고 있었다.⁷⁾ 홍콩당은 1880년대부터 중국에 정제당 시장을 개척하고 독점해 왔으나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당과 자바당에게 시장을 크게 잠식당했다. 결국 1928년에 자딘 매디슨 사(Jardine, Matheson & Co., 중국명은 怡和洋行)가 1878년에 화희양행(華熙洋行, Wahee & Co.)에게서 인수하여 세운 중화화차당국(中華火車糖局, the China Sugar Refining Co., 속칭 이화당창)이 1928년에 폐업했다. 1930년대 홍콩에는 스와이어 사(John Swire & Sons Ltd.)의 중국 현지 법인인 버터필드 앤 스와이어 사(Butterfield & Swire Co. 중국명은 太古洋行)가 세운 정제당회사 태고당방(太古糖房, 정식 명칭은 太古車糖股份有限

문 및 히라이의 저서를 직접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1996년 논문은 일본어로 발표되어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핵심 통계와 표는 재수록하였다.

- 6) 중국의 설탕 수입량 추이에 관해서는 平井健介 책의 51쪽 표5(1902~17년), 79쪽 표6(1918~29년), 112쪽 표2(1928~35년)가 천 톤 단위로, 정영구, 『1902~1930년 중국 백설탕시장의 성격』, 『중국사연구』 121, 2019의 172쪽 표1(1891~1894년), 202쪽 부표1(1902~30년)이 담(=60kg) 단위로 정리하고 있다. 정영구의 통계는 해관통계에서 정제당과 백당만 합산한 것이라 1929년 65만 톤이고, 히라이 통계는 아마 각종 설탕을 합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山下久四郎編, 『砂糖年鑑』(1935, 1936)을 인용하여 77만 7천 톤으로 제시한다. 또 다른 자료는 1929년 중국 설탕수입 총액으로 14,857,000담, 89만 1,420톤(實業部中國經濟年鑑編纂委員會編, 『中國經濟年鑑』(中), 商務印書館, 1934, 139쪽), 14,423,000담, 86만 5,380톤(“Kuangtung Government Sugar-factory”, *Chinese Economic Journal and Bulletin Vol. 18 No. 2, 1936, p.158*)으로 제시하는데, 1929년이 피크인 것은 동일하다. 설탕 판매 단위인 1담(擔)은 영어로는 picul이며 약 60.48kg이다. 그러나 자바 1담(picul)은 2% 더 무겁고, 같은 picul이라도 지역차가 있다. 본문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톤수 환산에서 1담=60kg으로 간략 환산하였다. 가끔 포(包, bag) 단위도 등장하는데, 포장 방식에 따라 1담과 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하나, 태고 문서에서는 1포는 대략 1.35담이다. 이외에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제단위는 cwt.=50.8kg이다.
- 7) 아시아 설탕 생산과 시장의 장기적 변동에 관해서는 강진아, 『근대 동아시아 설탕 시장과 홍콩 제당업 - 상인 디아스포라는 지속 가능한가?』, 『역사비평』, 2020년 봄호를 참조. 1920년대와 1930년대 해관통계를 이용한 수입당의 지위 변화에 관해서는 정영구, 『1902~1930년 中國 백설탕 시장의 성격-』, 『중국사연구』 121, 2019이 잘 정리하고 있으며, 히라이 켄스케 저서의 각 장별 중국 수출입 통계 역시 상세하다.

公司, the Taikoo Sugar Refinery Co., Ltd. 1881년 설립, 1884년 전면 가동, 속칭 태고당창)만이 살아남았다.⁸⁾ 태고당방은 “태고당(太古糖, Taikoo Sugar)”이라는 브랜드로 중국 고급 정당 시장을 석권했었다. 그러나 1925년 5.30 운동 이후 반영 보이콧과 대파업을 겪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후로는 엔화 환율의 급락과 덤핑공세에 만주와 화북 시장을 일본당에게 빼앗기면서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더구나 1925년을 전후해 일본과 홍콩에 원료당(조당, 적당, Java brown)을 공급했던 자바당의 백당(Java white)이 직접 소비용으로 대거 중국에 수입 판매되면서 중국 수입시장 자체를 흔들었다. 백당은 가격이 정제당보다 저렴하고 색이 비슷했기 때문에 경기 하강기의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⁹⁾

1928년 12월 마침내 중국정부가 관세자주권을 되찾고, 1929년 2월부터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서 “자유 시장(free market)”, “열린 시장(open market)”이었던 중국 설탕 시장은 “통제 시장(regulated market)”, “닫힌 시장(closed market)”으로 바뀌게 된다. 때마침 1929년 미국 월가의 주가 대폭락으로 세계대공황이 발생했다. 대공황의 영향은 아시아 지역마다 시차와 강도의 차이가 있었다. 금본위권인 일본과 동남아시아에는 1930년대부터 산업분야에서 즉각적으로 경기 하강이 나타났으나, 은본위권인 중국은 1932년부터 농촌경제 붕괴에서 도시 상공업 분야로 더 늦게 그리고 역방향으로 불경기가 퍼져갔다. 제당업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세계 원당 생산의 1위를 차지하는 쿠바당이 1929년에 500만 톤, 2위 자바당이 1930년에 300만 톤을 생산하는 등 기록적인 증산을 해버린 직후였다. 대공황으로 1930년대 설탕 수요는 격감했고, 세계적으로 원당과 정당 가격의 하락, 재고과잉, 덤핑과 과당 경쟁이 벌어졌다.¹⁰⁾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의 최대 설탕시장이었던 중국은 이제 “열린 시장”으로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꾸로 중국 정부의 입장에 서자면, 외화유출의 주범인 설탕을 수입 대체할 수 있는 절

8) 杉山伸也, 『日英經濟關係史研究 1860~1940』,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208-209쪽.

9) 전통기법으로는 당밀을 포함한 합밀당을 제조할 수 있었는데 선진 지역인 광둥성에서는 전통기술로도 갈색을 띤 적당(赤糖)뿐만 아니라 흰색을 띤 백당(白糖)까지 생산했다. 원심분리기를 쓰는 근대식 정제당 공장에서는 분밀당을 생산하는데, 1차로 당밀을 분리하여 갈색을 띤 적당[원료로서 조당(粗糖)이라고 불린다]을 생산하고, 여기에 탈색을 가해서 백당을 생산 가능했고, 적당을 원료당으로 2차 정제하여 당밀을 완벽히 제거한 정당(精糖)을 제조했다. 고급 정당은 hard sugar라고 불리고, 적당/조당은 brown, 백당은 white, 다소 굵은 백당을 분쇄하고 첨가물을 넣어 2차 가공하여 부드럽게 만든 설탕을 soft sugar라고 부른다. 실제 시장에 상품화되는 설탕 종류는 10여 종에 이를 정도로 정제 수준과 가공 방식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자바와 쿠바와 같은 식민지 지역에서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경영하여 1차 조당을 원당(raw sugar)으로 생산해서 정제당 공장으로 수출했는데, 후에는 백당, 정당 생산 설비도 갖추어 독립성을 높였다.

10) G. Roger Knight, “Exogenous Colonialism: Java Sugar between Nippon and Taikoo before and during the Interwar Depression, c. 1920-1940.”, *Modern Asian Studies*, Vol. 44, No. 3, 2010, p. 480.

호의 찬스였다. 1931년 남경국민정부는 실업부의 중점 12대 공업 건설에 제당업을 포함시켰다. 쿠바와 협력하여 상해(上海)에 1천 톤급의 국영제당장을 설립할 계획까지 세운다. 그러나 가조인까지 한 계약은 일본이 만주사변(滿洲事變) 후 상해를 폭격한 제1차 상해사변을 일으키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1934년에는 재차 실업부와 쿠바 간에 상해, 광둥, 해남도, 사천, 한구, 중경 등 전국 각지에 근대적 제당장을 4단계에 걸쳐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제당업 성장을 뒷받침할 보호 조치로 1929년 설탕 관세율을 수입가격의 7.5%에서 27.5%로 올렸고, 1930년 12월, 1933년 5월, 1934년 6월 연이은 개정을 거치면서 관세율은 150%까지 올랐다.¹¹⁾ 이런 보호 하에 수입당 판로를 막았으니, 정부로서는 그 수요를 국영정제당공장을 지어 흡수하고 재정 수익까지 기대한 것이다. 일본이 보호관세와 함께 정부 보조금과 세금 우대를 통해 민간기업의 정제당 투자를 유도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국영화 대신에 제도적 통제를 선택했다. 대만 원당 생산과 정당 생산의 총량과 배분, 판매가를 당업연합회(糖業聯合會)라는 판매 카르텔을 두어 “산당처분 협정(産糖處分協定)”과 “원료당 매매 협정(原料糖賣買協定)”을 통해서 조정하여 사실상의 반시장적 통제 효과를 거두었다.¹²⁾ 중국에서는 민간 제당업자의 이익 보호와 장려가 아니라 관세주권을 회복한 당초부터 국영공장화가 기획되었다는 면에서, 제당업 건설의 재원 확보 우선이라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고관세가 민간 상인계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면 상인 계층이던, 이전보다 비싼 설탕을 사야 하는 일반 소비자에겐 환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연했던 것이 밀수였다.

<표 1> 중국의 설탕 정규수입량과 밀수량(1928-35년) (단위: 1,000톤)

	관세지수 (1929 =100)	수입량	정규품				밀수품					
			자바당	홍콩당	일본당	대만당	자바당	홍콩당	일본당	대만당		
1928	40	766	748	503	32	213	0	18	18	0	0	0
1929	100	777	759	546	38	175	0	18	18	0	0	0
1930	100	707	676	436	49	191	0	30	24	0	6	0
1931	175	684	610	399	42	156	13	75	48	0	24	3
1932	350	519	340	188	66	67	18	180	137	0	60	12
1933	350	420	252	153	36	60	3	168	130	0	36	2
1934	350	419	243	137	38	68	1	176	156	0	19	0
1935	350	413	245	93	26	106	20	167	128	0	18	2

11) 강진아, 앞의 논문, 1999, 285쪽, “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sugar industry in the Hainan Island”, 1934.5.24. JSS 5-1-9, John Swire & Sons Ltd Archive, London University SOAS Library Special Collections 소장(이하 분류번호만 기재함).

12) 平井健介, 앞의 책, 38쪽.

출전: 平井健介, 『砂糖の帝国 : 日本植民地とアジア市場』, 東京大学出版会, 2017, 122쪽.

원출전: 山下久四郎, 『関税引上後に於ける支那糖の發展』, 1936, 32-33쪽; 山下久四郎編, 『砂糖年鑑』, 1936, 224-225쪽; 山下久四郎編, 『砂糖年鑑』, 1935, 246-247쪽.

위의 표를 보면 설탕 관세율은 1929년 첫 관세 자주권 획득 후 적용한 관세율(가격의 27.5%)을 지수 100으로 하여, 1932년까지 3.5배나 올랐다. 밀수를 뺀 공식 수입량은 1929년 약 76만 톤 수준에서 25만 톤으로 폭락했다. 밀수량은 1929년에는 1만 8천 톤 가량이다가, 관세가 3.5배나 오른 1932년부터 17만-18만 톤까지 늘었다. 정규 수입과 밀수를 더한 총수입량은 약 80만 톤에서 58만 톤 정도로 역시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 다른 밀수입 통계는 이와 좀 다른 수치를 보여준다. 아래를 보자.

<표 2> 중국의 설탕 밀수입량 추계(1933-1936년)(단위: 1,000톤)

연도	만주 밀무역 추계량	홍콩 밀무역 추계량	합계
1933년	25.9	23.1	49.0
1934년	18.8	53.3	72.1
1935년	14.9	22.4	37.1
1936년	115.0	33.0	148.0

출전) 日本糖業連合會, 『滿州國・中華民國の砂糖貿易並に需要量に關する統計的一考察』, 1938, 35쪽, 표32.

* 1담 단위를 인용자가 천 톤 단위로 환산함. 소수 한 자리로 반올림하여 표기. 담 단위의 정확한 수치는 강진아, 앞의 논문, 1999년, 287쪽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 추계 방식은 중계지(滿州·香港) 해관보고의 중국행 재수출량과 중국해관보고의 중계지에서의 수입량 차이로 추계했음.

전체적으로 <표 1>의 밀수량이 17만-18만 톤 범위로 증감 폭이 적고 일정한 반면, <표 2>에서는 밀수량이 5만-7만 톤 정도이고 1935년에는 오히려 줄었다가, 1936년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밀무역 통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야하지만, 필자는 홍콩의 밀무역은 두 번째 표의 계산법에서 도출된 결론, 1934년에 전 해의 두 배로 크게 늘었다가 1935년에 확 줄고, 1936년에 재증가하는 추세가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추세가 당시 화남 설탕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광동성 제당 산업의 경과를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1934년부터 광동성에서는 남경국민정부에 앞서서 근대적 제당장의 정부 주도 건설(이 경우는 국영이 아니라 성영공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유통까지 통제하는 설탕전매를 실시했다. 광동성정부는 설탕전매를 실시하면서 밀수를 엄격히 금지했지만, 물밑에서는 성정부 자신이 광주 해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량의 자바당, 홍콩당을 반입하여 광동성 내에 공급했다. 그러다가 1935년부터 성영제당공장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자, 광동성은 민간의 밀수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하고 홍콩당의 반입을 줄여갔던 것이다.

2) 광동성의 성영제당창 건설과 설탕전매

광동성은 국내 유력 설탕 생산 지역으로 해외에 수출까지 했으며 국내 성외(省外) 이출 설탕의 70%를 차지하는 상업화된 산당 지역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이르면 설탕을 오히려 수입해야했고, 조산(潮汕) 지역의 조당(潮糖)만이 근근이 상해로 이출되는 정도였다. 1930년대 광동성의 연간 설탕 소비량은 대략 30만 톤(500만 담)으로 성내에서 생산되는 토당(土糖, 전통 제당기법으로 생산되는 함밀당, 국산당)이 21만 6천 톤 가량(360만 담)이었다. 수입이 14만 4천 톤(240만 담) 가량으로, 이 중에 10만 톤은 성외로 이출되었다.¹³⁾ 광동성은 재정적 목적으로 관세 외에도 수입 설탕에 전세(專稅)라는 지방특별세를 징수하여 수입량을 줄고 성내 설탕 가격은 등기했다. 광동성의 설탕 수입량은 1930년 11만 2,860톤(188만 1천 담), 1931년 6만 6,480톤(110만 8천 담), 1932년 3만 5,880톤(59만 8천 담)으로 줄었는데, 실제 밀수량을 더하면 늘 14만 톤 이상이 성내로 들어왔다고 한다. 광주 주재 일본영사관 보고에 따르면 1932년 4월부터 1933년 3월까지 광동성 성도(省都)인 광주(廣州)로 수입된 설탕은 1만 1,100톤(18만 5,000담)이었다. 그 중 대부분이 자바당(16만 4천 담)이고, 나머지가 홍콩 및 기타 지역에서 수입되었다.¹⁴⁾

당시 광동성은 군벌 치하에 있었다. 광동군벌 진제당(陳濟棠)은 남경국민정부 성립 과정에서 장개석에 협력하여 1929년 광동성의 군권을 장악하였다. 그런데 그가 1931년 호한민(胡漢民)의 반장운동(反蔣運動)에 합류하면서, 광동성은 1936년 7월 양광사변(兩廣事變)의 실패로 진제당이 홍콩으로 망명할 때까지 5년 동안 반독립적인 할거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진제당은 남경 중앙정부와 대립하면서 군비 확충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군비지출은 1932년까지 18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격증하고, 군대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때 경제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광동성장(廣東省長) 임운해(林雲孩)의 주도로 1932년 9월 27일에 『광동성 3개년 시정계획 제의서(廣東省三年施政計畫提議書)』가 서남정무위원회(西南政務委員會)를 통과하여, 1933년 1월 1일부터 계획이 실시되었다. 간단하게 이 구상의 핵심은 자본이 적게 들고 이윤은 높고 회수가 빠른 산업을 찾아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산업이 바로 제당업이라고 적극 추천한 것이 농림국장(農林局長) 풍예(馮銳)였다.

풍예는 광동성 번우(番禺) 출신으로, 남경 금릉대학(金陵大學)과 코넬대학에서 농업경제를 공부한 엘리트였다. 그는 하북성(河北省) 정현(定縣)에서 향촌건설운동에 힘쓰다가, 1931년 광동성 건설청장이었던 호계현(胡繼賢)의 초빙으로 농림국장에 부임했다. 풍예는 중국 농촌

13) 川越總領事(廣東)→廣田外務大臣, 第159號, 1934.6.19., 日本外務省文書 S 5160-25 廣東省の部.

14) 川越總領事(廣東)→廣田外務大臣, 第161號, 1934.6.21., 日本外務省文書 S 5160-25 廣東省の部.

의 파탄이 “박래농산품(舶來農產品)”, 즉 수입품의 침입이라고 역설하고, 예로부터 중국의 주요 산당지역이었던 광둥성의 제당업을 근대화하여 설탕을 자급화하자고 주장했다. 진제당의 제가를 얻어낸 풍예는 1933년 필리핀을 방문하여, 무담보의 종자 제공과 미국 호놀룰루 제철소(Honolulu Iron-works Co.)로부터 제당 기계를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신조당창). 1933년 12월에는 중국에 진출한 스코다(the Skoda Works)와도 접촉하여 이듬해 3월에 정식 계약을 맺었다(시두당창).¹⁵⁾ 당시 세계제당업계의 침체로 제당 기계가 안 팔리는 상황이었으므로 가능했던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른바 “무자본으로 공업을 일으킨[無本辦工業]” 신화의 시작이다. 1934년 5월에 광둥성정부는 공식적으로 「당업 3개년 부흥계획(糖業三箇年復興計畫)」을 발표하고 성영의 신식 제당공장의 건설과 광둥성 내의 설탕전매 실시를 선언하였다. 광둥성에는 전통 기법으로 함밀당을 소규모로 제조하는 토당만 있었으나, 기계식 근대적 제당공장이 1934년부터 1936년까지 2년 사이에 6개나 세워지게 되었다. 원료의 원활한 현지 공급을 위해, 농민들에게 사탕수수 재배를 권장하고, 우수종자를 무료로 배포했으며, 1무에 25원씩 신용대출을 해주었다. 농민에 대한 대출총액은 1934년 398,000여 원에서 1935년에는 70여 만 원, 1936년은 9월까지만 1,00만 8,000원으로 크게 늘어났다.¹⁶⁾

<표 3> 당업부흥계획 하에 신설된 근대적 제당공장 (단위: 톤)

공장 이름	위치	건설사*	할부	일일 압착 능력	가동일
신조(新造) 제당창	주강 삼각주	H	18개월	500	1934년 12월
시두(市頭) 제당창**	주강 삼각주	S	20개월	1,000	1934년 12월
순덕(順德) 제당창	주강 삼각주	S	34개월	1,000	1935년 12월
계양(揭陽) 제당창	조산(潮汕) 지구	H	20개월	750	1935년 12월

15) 체코가 소장한 스코다 당안(the Skoda documents)에 따르면, 시두당창(C. Antonio, Sze-Tow)의 주문은 1934년 1월에, 정식 계약서는 3월에 조인되었다. 또 연이어 순덕당창(San Pedro, Shuntak) 건설을 수주하고 1935년에 완공했다. 1935년 3월에는 세 번째로 동완당창(Santa Anna, Tung Koon) 건설을 계약했다. 마지막 1936년 3월에 가장 중요한 계약이 이뤄졌는데, 시두당창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는 계획이었다. 계약가격이 2,500만 크라운으로 1936년 스코다 중국지점 총매출의 절반을 접하는 대규모 계약이었다. 이외에 호놀룰루사가 건설했으나 혜양당창(Waichow, Ping Tam)의 부품 조달 역시 스코다가 맡았다(Aleš Skřivan, “Škodovy závody a výstavba cukrovarů v Číně před druhou světovou válkou”(Skoda Works and the Construction of Sugar Refineries in China Before World War II), *LCAŘ 127, No. 11*, 2011, p. 323). 체코 굴지의 군수산업체인 스코다 사는 1920년대부터 무기, 기계류를 중국에 수출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Ales Skřivan Jr., “Czechoslovak Export of Arms to China in the Interwar Period”. *ÖT KONTINENS 1*, 2010을 참조.

16) 陳昭宇, 『廣東糖業與馮銳』, 1937, 48쪽; “Kuangtung Government Sugar-factory”, *Chinese Economic Journal and Bulletin Vol 18. No.2*, 1936, p.168. 이 절의 내용은 강진아, 앞의 논문, 1996 참조.

동완(東莞) 제당창	동완(東莞)	S	40개월	1,000	1936년 1월
혜양(惠陽) 제당창	혜양(惠陽)	H	-	1,000	1934년 11월

출전 “Kuangtung Government Sugar-factory”, *Chinese Economic Journal and Bulletin Vol 18. No.2, 1936*, pp.160-2; p.248

* H는 미국 Honolulu Iron-works Co.를, S는 체코 Skoda Works.의 약칭임.

** 시두당창(市頭糖廠)은 생산능력을 일일 압착 2,750톤으로 확장했는데, 확장 설비의 가동은 1936년 12월이므로 여기에서는 최초 압착 능력인 1천 톤으로 함.

** 앞의 네 곳, 즉 신조, 시두, 순덕, 계양 4곳은 성영공장(省營工場)이며, 동완, 혜양 두 곳은 제1집단군 구간서 직영으로, 군 재정 기관으로서 재정이 독립됨.

그러면 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장부상 1936년까지 900만 달러(약 4천 만 원)의 자금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공장 자체 건설에만 5천 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4천-6천 만 원하던 광동성 전체의 1년 재정수입에 맞먹는다. 처음에 풍예와 광동성은 남경국민정부 재정부장인 송자문에게 공업 재건을 명분으로 대출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1932년 말에 설탕을 비롯해 특별 수입세인 전세(專稅)를 실시해서 얻은 세수와 광동성은행권의 증발에 더해, 미국, 스웨덴 등 해외에서 3천 만 원의 차관을 끌어와 자금을 마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탕전매라는 유통통제로 단기간에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성내의 모든 설탕을(처음에는 수입당이 전부인 정백당만, 후에는 국산 분밀당인 토당까지) 등록하게 하고, 성내 가격을 성정부가 정하여 특허상인에게만 판매를 허락하는 완전한 통제였다.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중국의 전통적인 소금 전매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은 사탕수수를 경작하고, 정부는 제당을 하고, 특허상인이 가격과 구역을 할당받아 운반과 판매를 담당하는 형식이다.

1934년 6월 성전매국으로서 광동성(廣東省) 국화추소처(國貨推銷處) 당업부(糖業部)가 설치되어, 성내 설탕전매를 지휘했다. 10개의 특허상인을 선발하여 “전성당업영운상(全省糖業營運商)”으로 명명했다. 국화추소처 당업부는 각 시와 진에 공용 창고[糖業公倉] 13곳을 설립했는데, 영운상이 이 각 창고의 13개 분할 구역에서 분소상(分銷商) 240개를 선발하여 판매를 감독했다. 영운상은 정부에 보증금 4만 원을 납부했다. 분소상은 보증금 300원을 납부하고, 매일 최소 100담 이상을 판매해야 했다.¹⁷⁾ 광동성정부는 빨리 투자를 회수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내 설탕 가격을 비싼 가격으로 설정했다. 또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밀수 단속이 필수적이었으므로 1934년 9월 광동성 건설청은 “보호실업판법 16조(保護實業辦法16條)”를 발표해서 밀수 단속을 철저히 했다. 성영제당창의 생산고는 제1년(1934년 하반기 - 1935년 상반기) 8천 600톤(143,322담), 제2년(1935/1936년)은 약 2만 톤(330,000담)으로 크게

17) 영운상과 분소상의 결탁과 횡포가 문제가 되어 1년 뒤인 1935년 5월에 통제방식이 크게 수정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姜珍亞, 1996, 86-87쪽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늘었다. 설탕전매가 실시된 1년 간(1934년 6월-1935년 5월)의 전매수입은 1,094만 원으로,¹⁸⁾ 같은 시기 광동성 재정수입(회계연도, 1934년 7월-1935년 6월)의 약 16%나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성과가 막대한 수입을 다 보장해준 것은 아니었다. 사탕수수 재배 농가로부터 원료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성영 제당장은 초기 목표인 120일 가동에 훨씬 못 미치는 석 달 정도만 가동되었다. 설탕이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으니 공급이 부족해진다. 광동성정부와 풍예는 홍콩당과 자바당을 수입하여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로 했다. 다만,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하여 성영제당장에서 광동성 성영공장 브랜드인 “오양패(五羊牌)” 브랜드로 포장을 바꾸어 성내에 유통시켰다. 사실상 관세와 전세 부과로 홍콩과 광동성 내 설탕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행위였다. 그때부터 광동성의 제당업 건설에 대해서는 “무연당(無煙糖, 공장이 가동을 안 해 굴뚝에 연기도 안 나는데 상품이 생산된다)”이니, “관에 의한 밀수(official smuggling)”니 하는 비난이 쏟아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광동성을 바로 마주하고 있던 홍콩의 아시아 최대 제당메이커 중 하나였던 태고당방은 이 일의 경과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었을까. 장을 바꿔서 살펴보도록 하자.

3) 태고당방과 광동 설탕 전매

처음 태고양행 홍콩지점이 광동성 제당장 건설 계획에 대해 런던에 보고한 것은 1933년 9월 26일이다. 삼일 뒤인 29일에는 광동성 해남도과 뇌주에서 성영 사탕수수 농장이 조성되고 있으며, 황포 근처의 신조(新造, Suntso)에 첫 성영 제당공장이 시험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상세한 내용을 전했다. 이 정보는 태고양행 설탕부 매니저, 즉 설탕 판매 총매관인 막응계(Mok Ying Kwai, Y.K.Mok, 莫應濇)가 제공한 것이었다. 그는 광동성정부가 성영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5만 원 이상의 민간 제당장 설립을 금지했다는 보고를 했는데, 훗날 사실과 정확히 부합한다.¹⁹⁾ 원래 막응계는 해남도과 뇌주의 서문(徐門)을 제당 기지로 개발하려고 1932년 즈음부터 광동성 군부와 접촉해왔었다. 하지만 민간 제당장 설립 금지로 이 계획을 포기하고 광동성의 성영제당장과 설탕 전매에 참여하게 되었다.²⁰⁾

18) “Kuangtung Government Sugar-factory”, *Chinese Economic Journal and Bulletin Vol 18. No. 2, 1936*, pp.165-6.

19) Messrs. Butterfield & Swires. Hong Kong(이하 Hong Kong)→Messrs. John Swire & Sons, Ltd. London(이하 London), 1933.9.26., 9.29., JSS 5-1-8, 런던대학 SOAS 소장 스와이어 당안(the Swires Archive); London→Hong Kong, 1933.10.27., JSS 5-1-8.

20) 莫應濇, 『英商太古洋行近百年在华南的业务活动与莫氏家族的关系』, 张仲礼·陈曾年·姚欣荣, 『太古集团在旧中国』, 上海人民出版社, 1991, 77-82쪽.

몇 달 뒤 막응계는 광동성과 광서성 관리들을 만나 제당업 건설에 관해 논의하고 그 내용을 홍콩지점에 전했다. 홍콩 태고 측은 쓸모없는 정보라고 이를 일축했다. 막응계는 이 벤처에 태고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설득한 듯한데, 홍콩지점은 광동성과 광서성이 18만 톤(300만 담)의 해외 설당을 대대적으로 밀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런던에 보고하면서 현지 당업 건설에는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콩지점은 현재 광동성의 사탕수수 경작면적 5천 무 가량으로는 대량 생산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았다. 홍콩지점은 막응계가 자신이 신조당창의 후원자(the sponsor)라고 주장하지만, 이 개발에서 민간자본은 배제될 것이라고 비웃었다.²¹⁾

실제로 1934년 들어서 공장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밀수 소문만 무성했다. 남경국민정부의 고관세정책과 광동성, 광서성의 반독립적 할거로 남중국에서는 자바당의 밀수가 왕성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중국 시장에서 정제당보다 자바백당 소비가 늘어나자 1933년부터는 대만에서도 소비용 백당을 바로 생산하여 정크선으로 복건성과 광동성 산두(汕頭) 지역으로 밀수출하였다.²²⁾ 태고양행 상해지점 책임자인 미셸(C.E. Mitchell)은 상해 시장으로 이출되는 광동성 산두와 광주에서 오는 국산당, 즉 토당(土糖, native sugar)은 거의 밀수한 자바당이라고 지적했다.²³⁾ 홍콩지점은 광동성에서 일일 2,500톤의 사탕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3개 공장이 세워지고, 그 중 2개 공장은 1934년 연내에 가동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실제로는 3곳 다 연내 가동되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남부 성정부들은 주로는 해관을 통과하지 않은 자바 판매당의 재포장(the re-bagging)에 열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²⁴⁾

그런데 냉담하고 관조적인 분위기를 뒤집은 것이 광동성 농림국장 풍예의 적극적인 러브콜이었다. 풍예는 3월에 태고양행 광주지점과 접촉해 홍콩 방문의사를 타진했다. 4월 20일 홍콩에서 풍예는 태고양행 인사들과 만났다. 그의 제안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성영 제당창에서 앞으로 조당을 생산하면 태고당방이 정제당 생산의 원료당으로 쓸 생각이 있는지, 두 번째는 곧 광동성에서 설당전매가 실시되면 오로지 특허상인에게만 광동성 내의 설당 판매권이 있다면, 태고설당을 성내 판매를 위해 구매하겠다는 제안이었다. 태고측은 원당 구입에 관해서는 샘플을 보여주면 고려해보겠다고 하고, 태고당 구매에 대해서는 태고당 마크만 제대로 찍힌다면 “오양패” 마크가 찍혀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회담의 경과보

21) Hong Kong→London, 1933.12.15., JSS 5-1-8.

22) A. R. Ovens, H.M.Consul, Tamsui Formosa→The Comptroller-General, Department of Overseas Trade, 1934.2.24. JSS 5-1-9.

23) Shanghai→Hong Kong, 1934.4.18. JSS 5-1-9.

24) Hong Kong→London, 1934.4.27. JSS 5-1-9.

고를 보면, 태고 홍콩지점은 광둥성정부가 자바 백당을 아직 가동 전인 신조당창에서 오양패로 재포장해서 성내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광둥성정부는 태고 양행과 경쟁 관계에 있는 홍콩의 유력 설탕수입상인 펜트레스 사(Pentreath & Co. 중국명 品利洋行)를 통해 자바당을 구입하고 있는데, 판매대금의 10%를 현금 보증금(deposit)으로 선지급하고, 백당이 홍콩에 도착하면 15%를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황포 항에 배달되면 주는 조건이라고 한다. 펜트레스 사는 수수료로 가격의 0.5%를 챙겼고, 광둥성 설탕 전매가 실시되면 이 채널을 통해 광둥성에 자바백당을 합법적으로 독점 공급하려 했다.²⁵⁾

이런 상황에서 자바백당이 광둥성에 독점 공급된다면, 정제당을 태고에서 공급 안 하면 손해였다. 1934년 3월 태고 광주지점이 풍예의 제안을 처음 알려왔을 때, 홍콩지점은 런던 본사가 다른 마크를 찍어서 파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런던 본사는 예상외로 “그쪽 상표(오양패)로 팔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둥성에서는 일본당이나 자바당도 오양패 상표가 찍혀서 유통되지 않겠냐며 사실상 묵인했던 것이다. 다만 런던 본사는 조건을 달았다. 반드시 판매를 펜트레스 사를 중간에 끼쳐 그 회사에 태고 설탕을 넘기는 것으로 끝내고, 홍콩에서 빠져나가 광둥성으로 들어가는 운반에는 전혀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²⁶⁾ 즉 해관 보고를 하지 않고 군함에 싣고 가던, 밀수를 하던, 태고 측은 펜트레스 사측에 설탕을 판 것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광둥성에 공급할 설탕을 자바백당과 태고당 채널로 미리 확보한 뒤, 1934년 5월에 공식적으로 광둥 설탕전매가 공포되었다(실시는 6월 1일). 막응계는 10대 특허상인[영운상]에 가장 먼저 들어갔다. 막응계가 영운상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의 본사를 홍콩의 펜트레스 사 사무실 안에 둘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자바백당의 수입과 펜트레스 사의 주선 역시 막응계의 막후 조율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막응계는 태고의 설탕매판이 기도 했지만, 홍콩에서 유력 자바백당 딜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설탕 전매 실시와 함께 펜트레스 사를 통해 구입한 자바 백당 500톤이 5월 초에 홍콩에 입하하여 광둥성의 군함으로 직접 황포로 실려 갔다.²⁷⁾ 이렇게 보자면 광둥성정부의 “official smuggling”은 시기적으로 1934년 5월 설탕전매를 전후해서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²⁸⁾ 5월 말에 펜트레스 사는 이미 자바백당 1,500톤을 배달했고, 현재 자바에서 1,400톤이 추가로 실려 오고 있다며, 광둥성정부로부터 대금은 이미 다 받았고 해관 통관 없이 바로 황포로 옮겨갔다고 태고 홍콩지점에 알려주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이 해관 신고 없이 광둥성에

25) Hong Kong→London, 1934.4.27. JSS 5-1-9.

26) Hong Kong→Canton, 1934.3.14. JSS 5-1-9; London→Hong Kong, 1934. 6.15. JSS 5-1-9.

27) Hong Kong→London, 1934.5.18. JSS 5-1-9.

28) 河相總領事(廣東)→廣田外務大臣,第6号2,1935.1.8.,日本外務省文書 S5160 廣東省の部.

사탕을 밀수하면 1차는 벌금, 2차는 투옥이지만, 3차는 사형이었다.²⁹⁾

이처럼 대규모의 밀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태고당방 설탕부의 총매판인 막응계가 광동성 정부와 제당 프로젝트에 깊이 연루되자 태고양행 내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1934년 3월과 5월 사이에 이미 태고 측과 매판 막응계 사이의 갈등은 심각해졌다. 상해와 홍콩지점 모두 막응계에 대해서 그가 설탕 밀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 태고설탕의 판매에 막씨 조직이 이미 효율적이지 않다며 그를 경질하고 유능한 C.P.Wong으로 설탕부 매니저를 바꾸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런던본사는 막응계가 설탕 시장이 정말 힘들었던 1933년 중국 시장에서 47,000담이나 팔았고, 이번 경질에 화가 나서 일본당 판매로 돌아서면 큰일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결국 6월에 설탕부 매니저(1932년 이래 매판제를 폐지하고 매니저로 이름만 바꾸었다)는 Wong으로 바꾸고, 그 대신 막씨 조직이 일본 설탕을 취급하지 않도록 예전과 마찬가지로의 우대 조건으로 태고설탕을 계속 공급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막상 막응계에게 설탕 매판 교체할 때 그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고, 회사를 추가로 세워서 광동성에서 특허상인 TO를 더 획득할 것이라는 계획만 줄줄이 설명했다고 한다.³⁰⁾

막응계가 태고 매판 자리를 그만두고 아예 광동성 설탕전매 특허상인 일에 전념한 뒤에도 광동성 정부와 태고의 협조 관계는 착착 진행되었다. 6월 21일에 재차 홍콩지점, 태고당방, 풍예가 만나서 240톤(4,000담)의 첫 계약이 이뤄졌다. 사인 직전까지 쟁점은 포장이었다. 5장짜리 보고서 중에 태반은 마크를 둘러싼 힘겨루기였다. 즉 성영공장 마크를 자루에 찍는 것은 용인하더라도 태고당방은 등급과 “Refined by Taikoo”의 영문 마크를 크게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예는 중국어로 “太古精製”를 작게 아래에 찍고, 성영공장 마크는 반드시 잘 보여야 한다고 고집했다. 풍예는 앞으로는 성영공장 마크가 찍힌 오양패 마대에 넣지 않으면 광동성 전역에서 어떤 설탕도 팔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밀수 대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일종의 협박인 셈이다. 대신 풍예는 미끼도 던졌다. 풍예는 현재 성영 제당장이 가동하기 전이라 광동성 시장에 공급할 정당이 필요한데, 이를 태고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또 당초 계획과 달리 성영제당장에서 백당을 생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향후 광동 성영공장에서는 주로 조당을 생산하고 이를 원당으로 홍콩에서 정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태고 측은 태도를 누그러뜨려 최대한 광동 제당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며, 바로 원하는 등급과 양의 정당을 생산해주겠다고 약속했다.³¹⁾ 이 6월의 4천 담을 시작으로 태고당 구입이 본격화되었다. 다음 달 7월에 광동 정부

29) Hong Kong→London, 1934.6.1. JSS 5-1-9.

30) Shanghai→Hong Kong, 1934.5.23.; Hong Kong→London, 1934.5.18., 5.25, 6.8, 6.12.; London→Hong Kong, 1934.5.25, 6.15, 5.26. JSS 5-1-9) (Hong Kong→London, 1934.5.18, 6.8, JSS 5-1-9. C.P.Wong은 막응계의 매제로 사실은 막씨 가족의 일원이다.

는 펜트레스 사를 통해 7월 배달로 각종 등급의 정제당 6,028포와 각설탕 50 케이스를 주문했고, 8월 배달로 10,300포, 9월 배달로 4,500포를 예약했다. 다만 태고는 수수료 0.5%를 지불하더라도 중개상으로 펜트레스 사를 끼고 계속 팔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 홍콩에서 알아서 설탕을 선적해가기 때문이다. 태고 측으로서는 태고 선박으로 설탕을 실어서 홍콩항구에서 중국 군함에 옮겨 실는 것이나, 광둥성정부와 직접 금융 결제(direct financial dealings)를 하는 것은 극력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³²⁾

태고당방은 성영제당창의 상황을 알기 위해 막응계의 뒤를 이어 설탕 매판이 된 C.P. Wong를 두 차례(1934년 8월 9일-11일, 15일-19일) 광주로 파견하였다. 그의 보고서는 지금까지 광둥성 성영제당창과 설탕전매에 관한 어떤 공식 자료보다 자세하다. 여기에서는 태고당방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다.³³⁾ 그에 따르면 광둥성정부는 전매가 시작되고 두 달이 흐른 8월 단계에 자바 백당을 자바의 유력 화교 제당회사인 건원(建源, Messrs. Kian Gwan)으로부터 750톤³⁴⁾, 역시 자바당 수출업자인 독일자본 에드만 사(Erdmann & Sielcken)³⁵⁾로부터 500톤, 홍콩의 기타 딜러로부터 200톤, 홍콩의 자바당 수입업자인 펜트레스 사로부터 무려 6,000톤을 구입했다. 구매한 설탕은 신조당창 1담 및 ½담으로 채포장되고 광둥성 성영 물산의 공동 브랜드인 “오양괘(五羊牌, the “Five Rams” brand)” 마크가 찍혔다. 이외에도 수요가 큰 설탕 상품인 캔디는 구룡반도 몽콕 소재의 홍콩 당행인 Messrs. Nam Cheong과 Messrs. Chun Wah로부터 각각 7,000담, 2,500담을 구입했다. Wong의 보고에 따르면 “태고정제”라는 중국 글자는 너무 낮은 곳에 프린트되어 잘 안 보였다고 한다. 태고당의 운송은 해군이 홍콩에서 황포군관학교 맞은편 선착장까지 운반하고, 이 선착장에서 신조공장까지는 현지 정크선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성영 브랜드로 광둥성 각지에 공급

31) Hong Kong→London, 1934.6.21., 6.29. JSS 5-1-9.

32) Hong Kong→London, 1934.7.27., 7.30. JSS 5-1-9.

33) Hong Kong→London, 1934.8.24. JSS 5-1-9 C.P. Wong→Hong Kong, 1934.8.23. JSS 5-1-9.

34) 건원(建源)은 복건성 출신 황지신(黃志信)이 소도회 붕기 실패 후 자바로 도망가서 정착하여 1863년에 세운 상점이다. 아들 황중함(黃仲涵) 대에 와서 자바 최대의 화상이자 대규모 제당 자본으로 성장하였다. 1924년 황중함의 사망 후 아들 황종선(黃宗宣)과 황종효(黃宗孝)이 사업을 이어, 1929년경에는 상해, 홍콩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 직접 지점을 설치하였다(蔡仁龍, 『黃仲涵家族與建源公司』, 『南洋問題』 1 1983年1期, 1983, 15, 18-19, 22쪽). 건원에 관해서는 吉原久仁夫 主編, 周南京 譯, 『黃仲涵財團：東南亞第一企業帝國』, 中國華僑出版社, 1993와 같은 저서가 있다. 특히 영어권에는 연구가 대단히 풍부한데 황중함의 영문명인 “Oei Tiong Ham”으로 검색하면 무수하다. 이 회사 연구로 유명한 네덜란드 학자 Peter Post씨는 다수의 저작을 쓰고 황씨 집안 후손과 인터뷰도 진행했는데, 황중함의 한자 이름이나 건원의 한자명은 전혀 몰랐고 필자 역시 “Oei”가 황지함인지 처음 알아서 서로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다.

35) 원문에는 “Messrs. Erkman’s representative”라고 되어 있는데 “Erdmann”의 오타로 보인다.

되는 설탕은 10명의 영운상이 구역을 나누어 독점 유통했다.³⁶⁾ 그러나 Wong에 따르면 이 열 명 중에 설탕 교역 경험자는 막응계와 또 한 명(Yuen Lai Chuen)뿐이라고 한다. 이들은 보증금 4만 원을 내지만 연이자 6%를 받을 수 있고, 판매가의 70%는 살 때에 바로 성정부에 바로 지급해야하며, 외상(신용)은 12,000원까지 가능하다. 판매 할당량은 1달에 5,000담으로, 판매가의 3%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자기 구역 내의 분소상(Sub-Agents)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2천 원 이하로 받을 수 있었다.

Wong은 광동성정부가 7월에 54,000담을 팔았고, 약 16,000담을 밀수당으로 압류했는데, 그래도 2만 담 정도가 밀수되어 시장에 풀렸을 것으로 추산했다. 풍예는 팬트레스 사에게 자바 백당을 1담에 5.75-6원으로 구입하여 광동성 내에서는 통제가격 20원으로 유통시켰다. 태고에게서 산 정백당은 통제가격이 처음에 26원이었으나 너무 비싸서 안 팔리자 23원으로 낮췄다. 또 홍콩 현지의 캔디 당상인 Messrs. Nam Cheng에게서 구입한 캔디(Brown Candy) 3천 담은 구입 가격이 1담 7.10원이었는데, 오양패로 재포장한 뒤 산두에서 통제가격 23원으로 팔렸다. 7월 초 풍예는 오양패 캔디를 상해로 시험적으로 선적해서 보냈는데, 상해해관에서는 진짜 국산 캔디가 맞는 지에 의심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Wong은 아마도 “옛해관의 수입 허가증”을 좀 손봐서 마치 “재수출” 화물인 것처럼 꾸며서 갔을 것이라 추측했다. 또 광동성은 오양패 이름으로 광서성 시장에 설탕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광동성정부는 광서성 오주(梧州)까지 설탕을 무료 수송해주는 조건으로 자바 적당을 1담 20원에 판매했고, 광서성정부는 수수료로 판매가의 25%. 즉 1담에 5원을 챙겼다.

Wong은 풍예의 차를 타고 그와 함께 풍예의 고향인 번우 현에 지은 신조와 시두 두 공장 사탕수수농장을 견학했는데, 그해 12월 가동을 겨냥하며 한창 준비 중이었다. 사탕수수농장에서는 필리핀에서 가져온 신 종자들로 품종 개량을 하고 있었다. 신조공장은 하루에 500톤의 사탕수수를 착즙해서 7시간 안에 적당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고, 시두공장은 그 두 배로 일일 1천 톤의 착즙이 가능했다. 신조공장의 기계는 필리핀에 제당창을 지은 미국 호놀룰루 아이언 사(Honolulu Iron Work)사가 공급했고, 시두공장은 체코의 스코다 사(Skoda Works)가 공급했다. 두 공장 모두 착즙된 사탕수수는 연료로 사용하고, 원심분리기에서 분리된 당밀[Molasses]을 활용하기 위해 알콜정제공장을 지어 주정을 생산했다. 두 곳의 알콜정제공장은 the Baist Co.가 홍콩달러 2만 달러에 공급했다. Wong은 호놀룰루 아

36) Wong이 정리한 이들의 회사와 이름은 영문으로 다음과 같다. Lap Shing Kung Si(公司 경리 Y. K. Mok), Wang Tai 공사(Mok Wing Sun(Mok Hing)), Tai Shing공사(John Shing Chung), Yue Hing 공사(Kwok Siang Ngau), Sum Mon공사(Kwok Chang Dick), Tung on 공사(Ngau Yue Kung), Siang on공사(Yuen Lai Chuen), Shing Fat 공사(U Chik Fong), Man Sang공사(Fung Kam Ngo), Shun Lee 공사(Chan Chung) 등이다.

이언사와 산두 지역에 제당공장 하나 더 짓기로 계약했다고 전했는데, 이 회사가 후의 계양당창이다. 이 세 공장은 풍예가 직접 관할하는 성영공장이고, 광둥군 직영의 일일 1천 톤 착즙 규모의 공장인 the Waichow Mill도 보고하고 있는데, Waichow는 혜주(惠州)이므로 1934년 11월에 제일 먼저 가동한 혜양(惠陽) 제당창을 가리킨 것으로 판단된다.³⁷⁾

태고당은 광둥 설탕전매용 설탕으로 얼마나 팔았을까? 1934년과 1936년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태고는 광둥 전매에 펜트레스 사를 통해 1934년 약 56,000담(3,360톤), 1935년 30,780담(1,846톤), 1936년 29,700담(1,782톤)을 판매했다.³⁸⁾

<표 4> 태고당의 중국(만주 제외) 및 홍콩 지역 판매 총액에서 광둥 전매 판매액의 비중

	1934년		1935년		1936년	
	담(picul)	톤(ton)	담(picul)	톤(ton)	담(picul)	톤(ton)
중국 및 홍콩 판매 총액	938,430	56,305	608,174	36,490	723,612	43,416
광둥 전매	56,000	3,360	30,780	1,846	29,700	1,782
비중	5.9%		5.0%		4.2%	

출전: Hong Kong→London, 1935.5.31. JSS 5-1-10; Hong Kong→London, 1937.4.16. JSS 5-1-11

중국 전체에서 볼 때에 광둥 전매로 공급한 양은 결코 적지 않다. 광둥성, 복건성 등 남중국 지역은 산두와 복건에서 토당이 대량 생산되어 원래 정당 수요가 적었다. 태고당은 거의 침투하지 못하던 지역이었다. 그런데 광둥성에서 전매를 하는 바람에 이 시기에만 이처럼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태고당에게 이 독점 시장이 얼마나 중요했는 태고당의 가장 주력 시장인 양자강 유역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표 5> 상해, 양자강 지역의 정당(태고당, 일본당)과 자바백당의 시장 점유율(1930년-1934년)

기간	양자강 유역(단위: 담, picul)					시장 점유율(%)			
	정당			백당	총계	정당			백당
	태고	일본	소계	자바		태고	일본	소계	자바
1930	471,000	2,602,000	3,073,000	4,177,000	7,250,000	7	35	42	58
1931	766,000	1,292,000	2,058,000	2,753,000	4,811,000	16	27	43	57
1932	633,000	-	633,000	1,100,000	1,733,000	37	-	37	63
1933	674,000	-	674,000	1,076,000	1,750,000	39	-	39	61
1934(1-6월)	274,000	-	274,000	349,000	623,000	44	-	44	56

출전: Hong Kong→Shanghai, 1934.9.8. JSS 5-1-9

37) C.P. Wong→B&S Hong Kong, 1934.8.23. JSS 5-1-9.

38) Hong Kong→London, 1935.5.31. JSS 5-1-10; Hong Kong→London, 1937.4.16. JSS 5-1-11.

위의 표를 보면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상품 보이콧이 일어나, 1932년부터 일본당은 양자강 유역 시장에서 사라졌다. 덕분에 태고당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으나 판매량을 보면 사실상 계속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점유율이 계속 증가한 자바당 역시 판매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1934년은 최악이었다. 1930년에 725만 담이 팔리던 것과 비교하면 정당, 백당을 더해도 1932년, 1933년 모두 170만 담대로 주저앉았는데, 1934년은 상반기에 팔린 수량이 62만 3천 담에 불과했다. 시장 침체의 원인은 고관세로 인한 밀수가 만연했다는 사정도 있으나, 1932년 대공황의 여파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미치면서 1933년, 1934년이 심각한 불경기였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당보다는 조금이라도 싼 백당으로 선호가 바뀌고, 전체 판매량도 줄어들었던 것이다. 중국의 빈곤화야말로 홍콩 태고당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게다가 불경기는 중국만이 아니어서 일본당은 대륙 침략으로 엔 블록을 형성하여 독자 시장을 확보하려고 하였고, 유동성이 강한 설탕은 세계에서 재고의 아웃렛을 찾아 몰려들었다. 만주국과 기동방공정부의 성립 이후 만주와 화북에서 일본당은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다. 조선 접경 안동 지역에서는 태고의 대리점이 있었는데 조선의 평양공장(the Ping Yang Refinery in Korea)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정기 판로를 뚫기 힘들다며 사실상 철수했다.³⁹⁾ 주력 시장인 상해에서는 자바백당 이외에 정당 시장에서도 경쟁자가 다수 등장했다. 1934년 9월 보고만 보아도, 미국 정당 2천 톤과 프랑스 사탕무당 3천 톤이 상해 시장에 팔렸다.⁴⁰⁾ 영국의 대표적 정당인 테이트 정당(Tate & Lyle Co.)이 홍콩 시장에서 덤핑 판매를 하는가 하면,⁴¹⁾ 자바 화상 건원의 상해지점 건원(建源)과 자바백당 수입업자 창흥(昌興)은 테이트 정당을 2천 톤이나 상해로 사왔다.⁴²⁾ 게다가 태고당방에 자바 조당을 공급해온 오랜 파트너인 맥클레인 왓슨 사(Maclaine Watson & Co.)조차 중국 소프트 슈가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나서는 형편이었다.⁴³⁾ 어지간했으면 1935년 1월 4일 보고에서, 홍콩지점은 지금 같은 덤핑 시장에서는 사업이 너무 어렵다면서, 제당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할 정도였다.⁴⁴⁾ 그렇게 1934년과 1935년이 태고당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광동 전매와 같은 독점 구매는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웠을 것이다. 1935년 9월의 경우, 월별 보고에서 만주와 중국 전체에서 1만 9천 담을 팔았는데, 이중에 8,100담이 광동 당국

39) Hong Kong→Shanghai, 1934.9.20. JSS 5-1-9.

40) Hong Kong→Shanghai, 1934.9.24. JSS 5-1-9.

41) London→Hong Kong, 1933.1.20. JSS 5-1-8.

42) Hong Kong→London, 1934.10.19. JSS 5-1-9

43) 이른바 소프트 슈가는 자바백당이 정당보다 입자가 굵은 단점을 입자를 작고 더 부드럽게 만든 설탕으로 1920년대부터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품이었다.

44) Hong Kong→London, 1935.1.4. JSS 5-1-10.

에 판 것이었으니 기쁠 수밖에 없었다.⁴⁵⁾ 그런데 이러한 밀월관계에 있는 광동당이 남경국민정부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설탕 전매를 실시하여 상해 시장까지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태고당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2. 전국 설탕전매와 홍콩 태고당방

1) 광동당의 상해 진출과 전국 설탕 전매의 추진

풍예의 꿈은 광동 당업 건설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입대체 국산화와 중국 시장의 자급을 이루는 것이었다. 당시 풍예와 같이 구상하고 제당업 투자를 기획한 민간 자본, 관영 자본은 적지 않았다.⁴⁶⁾ 상해의 수입백당 가격은 높은 관세 때문에 1담에 24원 가량이었는데 풍예는 광동에서 원가 12원에 백당을 생산해서 팔면, 광동에서 상해까지 운반비를 가산해도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가동을 해보니 초기 원가는 원료인 사탕수수 조달의 어려움과 공장 운영의 미숙함으로 19.4원까지 치솟았다. 반면에 상해의 수입 설탕 가격은 1936년까지 21.5원대로 하락해서, 운반비를 생각하면 가격 경쟁력도 애매하고 이윤도 크게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광동성처럼 전국에 설탕 전매를 실시해서 생산과 공급은 광동성이, 전매 이익은 남경국민정부가 나눠 갖는다면 안정적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더구나 “국산화”라는 명분도 있었다. 사실 정당을 생산한 태고당방과 전매로 유통시킨 광동성정부의 관계가 바로 이런 나눠먹기 관계였지만, 이 경우는 “관에 의한 밀수”였고, 상해로 내보낼 설탕은 풍예도 성영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으로 준비하고 남경국민정부와 대화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1935년의 전국적 설탕전매는 준비 단계에서 외국 설탕업자들과 상해 설탕도매상인 당행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된다. 이 과정은 이미 기존 연구가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나 그 속에 숨겨진 태고당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해 정리가 필요하다.⁴⁷⁾ 광동당의 상해 수출과 남경국민정부의 설탕전매 실시, 유예 경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5) Hong Kong→London, 1935.10.11. JSS 5-1-10.

46) “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sugar industry in the Hainan Island,” H. C. Lin→Messrs. Dodwell & Co., Ltd., 1934.5.24. JSS 5-1-9.

47) 별도로 각주를 달지 않은 부분은 모두 강진아, 앞의 논문, 1999과 平井, 2017의 제4장을 정리한 것이다. 두 논문 외에 것은 따로 각주를 달았다.

1934년 6월 1일 광둥성에서 설탕 전매가 실행에 옮겨지고 그해 말에는 광둥성영당창이 생산한 설탕을 상해 시장에 팔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1934년 12월 3일 광둥성 성영물 산경리처(省營物産經理處)는 상해의 당행 원태항(元泰恒), 원흥(元興), 창흥(昌興) 세 상점이 합작하여 세운 흥화공사(興華公司)에 판매를 위탁하였다. 원흥(元興), 창흥(昌興)은 자바 화상 건원(建源)이 상해에 설립하거나 깊게 관계하는 회사였다. 이때쯤에 남경국민정부 재정부 산하로 전매 제도 연구 기관으로 식당운소관리위원회(食糖運銷管理委員會)가 상해 해관 건물에 사무실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회 구성원은 재정부를 대표해 관료 경력의 양경순(梁敬鎔)과 민간 대표로 자바 화상 건원의 상해 대표였던 황강천(黃江泉) 두 사람이었다.⁴⁸⁾

자바 최대의 화교 제당자본인 건원은 중국이 설탕 수입에 고관세를 부과하자 황강천을 파견하여 1932년부터 상해에 제당장을 보유한 중국인에게 원당 수입을 위한 관세 우대를 해달라는 로비를 하고 있었다. 고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중국 직접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황강천은 당시 휴업 중이던 명치정당 상해공장인 명화당창(明華糖廠) 매입을 타진했었는데 무산되었다. 그는 1933년 1월에 아예 남경국민정부 교통부에 직위를 하나 얻어 상해에 영구 정주한다고 선언하고 5월 즈음에는 광화당창(the Kwang Hua Refinery)을 설립하여 곧 가동에 들어갔다. 황강천과 남경국민정부 관리 사이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이미 1933년 12월 홍콩지점의 편지에 건원이 설탕 수입권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할 정도였다.⁴⁹⁾ 그렇게 보자면 1934년 말 광둥당의 등장으로 건원, 남경국민정부, 광둥 사이에 새로운 조합이 구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35년 1월에 광둥당 2천 포가 처음으로 상해에 입항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상해 시장에 광둥당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남경국민정부는 3,600톤(6만 담)에 한해서 상해 입항을 허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4월 말까지 상해에 입하한 광둥당은 이미 3,600톤에 육박했고, 품에는 광둥성을 대표하여 쿼터를 늘리려 노력하고 있었다.

광둥당의 상해 입항과 동시에 남경국민정부의 전국적 설탕 전매 구상이 상해상계에서 논의되었다. 1월에 상해당업공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상해당업합작공사(上海糖業合作公司)를 설립하여 2월부터 활동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이 단체의 목표는 국산당의 발전을 목표로 삼되, 국산당 생산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므로 그때까지는 수입당도 함께 취급하여 합작공사에 참여한 당행들이 전국적으로 유통을 책임진다는 구상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산당은 국내에서 최초로 대량의 기계식 분밀당 생산에 성공한 “광둥당”을 지칭하는 것이고, 외국당은 “자바당”이었다. 흥화공사는 광둥당 판매를 당업합작공사에 재위임하는 형식으로 참

48) 三菱商社(上海)→農産部長, 糖第34號, 1935.5.2., 日本外務省文書 S5100-3砂糖の部.

49) Hong Kong→London, 1933.1.6., 5.19, 12.1. JSS 5-1-8.

여했다. 기타 전통적 기법으로 만든 토당이나 다른 외국 수입당의 거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이 조치로 “광동당”은 반드시 당업합작공사가 앞서의 흥화공사로부터 구입해서 각 회원 당행들에게 지급하고, “자바당”은 4개 상점으로 구성된 카르텔인 자바당판매단(建源, 昌記, 源記, 新益 4개 상점)에서 구입해서 각 회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했다. 광동당과 자바당에 한해서는 전국 각지의 설탕시장에 설탕을 공급하는 중심 시장이었던 상해에서 공급선이 독점화된 것이다. 이 7개 회사는 모두 자바 최대의 화교 제당자본이었던 건원(建源)이 관계하는 회사였다.

상해당업합작공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외국 회사들과 영사관들은 설탕 전매 실시를 의심했다. 2월 1일에는 일본공사 아리요시(有吉)의 왕정위(汪精衛) 면담이, 7일에는 스마(須磨) 남경총영사의 실업부장 진공박(陳公博) 면담이 있었는데 모두 설탕전매와 자바당의 시장 독점 의도를 캐묻는 것이었다.⁵⁰⁾

남경정부 관리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1935년 5월 1일 전격적으로 설탕에 대한 전면적 통제와 전매공사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같은 날에 2명으로 “주비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식당운소관리위원회가 재정부 식당운소관리국위원회(食糖運銷管理局委員會, Sugar Distribution Commission)로 정식 성립하면서 1명의 주석위원과 4명의 위원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때 주석위원 양경순(梁敬鎔, 별명 梁和均, 광동성 출신, 구 세관관료)과 위원 황강천(복건성 출신, 건원공사 대표) 2명의 기존 멤버 이외에 3명의 위원이 추가되었다. 국정세칙위원회(國定稅則委員會副會長) 주소문(周紹聞, 별명 周典, 화북 출신), 상해우정저금국장(上海郵政貯金局長) 오증유(吳曾愈, 복건성 출신) 그리고 광동성 농림국장 풍예였다.

당초에 황강천이 같은 화교인 실업부장 진공박과 친했기 때문에 실업부에서 전매를 추진하고 재정부가 계획에 비판적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실제로는 진공박이 수차례 거절하는 바람에 송자문을 통해 재정부장 공상희와 접촉하면서 전매 추진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발표된 위원 명단을 보고 일본 상인들은 설탕 전매 추진에 중국 시장을 독점하려는 광동당과 건원공사의 음모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상들은 자바당 판매를 총괄하는 네덜란드 정청기관인 니바스(NIVAS)와 홍콩 태고당방 등 유럽 세력과 연계하여 반대 운동을 시작하였다. 5월 25일에 설탕전매를 실행할 반관반민의 합작기관으로 『중화당업고빈유한공사(中華糖業股份有限公司)』의 주주 모집 공고가 상해 신보(申報)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원래 상해당업합작공사에 참가했었던 상해 설탕도매업자 당행의 동업공소인 중국당업동업공회는 25일 제 28회 위원대회를 열어 중화당업공사 설치와 전매제 실시를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은 자바 건원계의 상점 9표에 불과했고, 38표로 반대가 몰표로 나왔다. 5월 30일에는 미즈이물산(三

⁵⁰⁾ 有吉公使(南京)→廣田外務大臣, 第89號, 1935.2.1., 日本外務省文書 S5100-3砂糖の部.

井物産), 미즈비시상사(三菱商事), 마스코양행(增幸洋行) 세 회사 및 태고양행, 이화양행 등 12개의 외국계 회사가 연명으로 항의서를 재정부에 제출했다. 같은 날 5월 30일에 중국당업동업공회는 제29회 위원대회를 열어 재표결에 들어갔다. 결과는 지난 표결보다 더 큰 격차로 찬성 6표, 반대 42표로 정부 전매제와 당업공사에 불참을 결의했다.

이러한 반대에도 6월 21일에 신보에는 중화당업공사(中華糖業公司)가 당행들의 지지를 얻어 자본금을 다 채웠다고 기사가 나갔다. 그러자 24일에 12개 양행이 재정부 공상회에게 재차 진정서를 전달하면서, 전매에 반대하는 상해당업동업공회 회원 38명의 명단을 함께 제출하였다. 뜻을 박기 위해 6월 25일에는 이 38개 당행이 중화당업공사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며 전매는 절대 반대한다는 광고를 신보에 게재했다. 결국 그날 밤 6월 25일에 재정부는 회의를 열어 전매제 연기를 결정하고, 재정부장 공상회는 스마(須磨) 남경총영사에게 전매 연기를 통보하여 전국적 설탕 전매 시도는 일단 좌절되었다.⁵¹⁾

이상이 필자의 논문과 히라이의 논문이 내용상 겹치는 부분이다. 히라이의 연구는 6월 말의 연기 결정에서 끝나지만, 필자의 논문은 그 뒤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다. 설탕 전매 추진이 무위로 돌아갔음에도 광둥과 남경의 합작 무드는 이어졌다. 7월에 풍예는 남경국민정부로부터 광둥당 상해 이출 제한량을 종전보다(1년에 3,600톤) 크게 늘어난 매월 2만 담(1,200톤)으로 허락받았다. 또 광둥성영당창에서 가공할 원료당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절반만 내고 3년 후에 나머지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세(保稅) 조치를 얻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광둥성이 국산당을 생산하고 중앙정부가 전매로 유통을 담당하여 이익을 나눠 갖는 구상은 여전히 검토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이듬해 1936년이었다. 5월 13일에 반장세력에 명분을 주던 국민당 원로 호한민이 사망했다. 진제당과 광서 군벌은 항일을 명분으로 반장 쿠데타를 일으켰다[兩廣事變, 6월 1일-7월 18일]. 쿠데타가 실패하고 진제당은 홍콩으로 망명하면서, 광둥성은 명실상부하게 남경국민정부의 손 안에 떨어졌다.

양광사변이 진압되던 7월에 남경국민정부가 국산당의 발전과 광둥당 통제를 내걸고 전국제당업자와 상해 당상을 망라한 “전국국당산소협회(全國國糖產銷協會)”를 결성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점령군으로 들이닥친 장개석과 중앙정부 관원들은 신속하게 8월내로 광둥성 정부 요직을 인사이동 조치하고 뒷수습에 들어갔는데, 비교적 평안한 권력 교체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농림국장 풍예만이 8월 10일 집무를 보던 사무실에서 체포되어 9월 9일 총살되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새로운 광둥성정부는 풍예는 총살했으면서도 엄청난 재정수익을 내는 설탕 전매제는 유지했다. 하지만 성내 당업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11월에 신당업통제관법(新糖業統制辦法)을 발표해 결국 전매제를 폐지하였다.

51) 강진아(1999)와 히라이(2017)는 날짜와 숫자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일본의무성문서를 주로 인용하였고, 후자는 일본당업협회 자료를 주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다소 주춤해보이던 설탕 전매는 전국적 차원에서 새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1937년 6월 남경국민정부 행정원은 「전국당업관리위원회안(全國糖業管理委員會案)」을 통과시켰다. 7월에는 전국경제위원회 상무위원이었던 송자문 주도로 광동성 해남도를 대규모 제당업 기지로 개발하는 “해남도개발사업계획”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7월 7일 노구교사건으로 중일 전면전이 발발하면서 계획은 유보되었다. 전시 동안 광동성의 성영공장 중 신조당창과 시두당창은 일본군의 폭격으로 크게 파괴되었다. 계양당창은 1937년에 재정난으로 민간업자에게 대여되었으며, 동완당창과 순덕당창 역시 1941년에 기간 3년으로 민간업자에게 위탁되었다.⁵²⁾ 전후 광동성성장으로 부임한 송자문은 1947년에 다시 한 번 광동성 당업 재건안을 기획했다. 국민정부 행정원장 옹문호(翁文灏)와 상담하여 “광동당업개발계획”을 입안했는데, 이에 따르면 광동성 내에 조당을 생산하는 기계식 제당창 40개, 정제당 생산까지 가능한 제당창 3개를 설립하여, 연간 1백만 톤을 생산해, 해외에 가공 수출까지 한다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이 안이 나올 당시 송자문은 일본이 전시에 떼어 간 당창의 기계를 전후배상으로 일부 되찾아오고, 또 부족한 기계는 접수한 대만 지역의 제당공장에서 가져와 광동성영공장들을 재가동시켰다. 당시 성영공장 산당량이 2만 톤, 토당까지 더 하면 광동성 전체 산당량은 20만 톤, 사탕수수 면적은 50만 무로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앞선 규모였다. 이 자산은 결국 중국공산당의 내전 승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 계승되어 마침내 대규모 제당업 생산과 국내 설탕 자급화를 성공시키게 되었다.⁵³⁾

2) 태고당방의 대응 전략

52) 중일전쟁 직후에 스코다 사는 1937년 8월에 공상회 재정부장과 1천만 파운드나 대출 및 판매계약(무기 및 제당기계 일괄)을 맺었고, 사천성에 제당창 건설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결국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접게 되었다. 특히 시두당창의 확대 계약은 이미 기계 설치 작업을 다 끝냈는데 공식 인수인계 절차를 못한 상태였다. 미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두당창은 일본의 공습으로 크게 손상되었다. 시두당창이 체코 국기를 내건 후에야 공습이 멈췄다고 한다. 체코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과 중국 측에 대금 결산 및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 이 30만 파운드에 달하는 배상 청구건은 중일전쟁 후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체코와 중국이 모두 공산화되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었고, 1957년에 양국은 1945년 5월 9일 이전의 클레임은 없던 걸로 하기로 합의를 보면서 종결되었다(Aleš Skřivan, *ibid.*, pp. 323-324).

53) 이상의 과정은 강진아, 앞의 논문, 1999 및 강진아, 「내전기 광동성의 성영공업 재건정책과 송자문」, 『중국근현대사연구』 24, 2004, Emily M. Hill, *Smokeless Sugar: The Death of a Provincial Bureaucrat and the Construction of China's National Econom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2001을 종합적으로 참조.

태고문서에서 남경국민정부의 설탕전매에 대한 보고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34년 10월이다. “Government Monopoly”라는 제호 아래에 상해지점이 남경국민정부가 설탕 전매를 설탕 수입과 관련해서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몇 주 전부터 떠돈다며 홍콩지점에 알려진 것이다. 상해지점은 이 시도는 첫째는 밀수를 막기 위함이고, 둘째는 “광둥 설탕 전매의 성공을 시기해서(in envy of the success of the Canton sugar monopoly)”라고 했는데, 당시 가장 유력한 소문은 수입쿼터제를 실시하리라는 것이었다. 송자문의 측근이자 중국정부 자문인 구스타프 아만(Mr. Gustav Amann)이 고관세가 설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자주 태고 상해지점에 문의했다고 한다. 그래도 상해지점은 설탕 전매의 실시 가능성을 낮게 보았었다. 상해지점은 쿼터제를 하면 지분을 잘 차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런던에 보고하고 있다.⁵⁴⁾

사실 앞서 1934년 6월 21일에 구스타프 아만의 요청으로 태고 상해지점은 1933년 중국의 설탕 밀수량 추정 자료를 만들어서 송자문에게 제공한 적도 있었다.⁵⁵⁾ 이를 보면 광둥성이 설탕 전매를 실시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남경국민정부도 적극적으로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그해 11월에 풍예는 남경과 상해를 방문한다. 홍콩지점은 홍콩에서 광주 황포항 사이의 균형 밀수를 해관이 묵인하던 것에 제지가 걸리면서 풍예가 달려간 것이라며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런던에 보고하였다.⁵⁶⁾ 풍예는 남경에 가서 광동당의 전국적 판매와 이입량 확대를 유세했다. 태고 상해지점은 그가 상해에 왔을 때 광동당 독점이 출회사인 흥화공사가 이미 설립되었다고 보고했으니, 돌이켜보면 이미 11월 시점에서 광동당의 상해 진출과 설탕 전매가 본격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⁵⁷⁾

히라이의 연구에서는 흥화공사의 설립을 12월 3일로 보았으나, 스와이어 문서에서는 이미 11월 12일에 상해지점이 “광동당의 중국 독점 판매회사 흥화공사(the Hsing Wah Co., Shanghai, for trading solely in Kwangtung Sugar in China)”라는 표제로 회사 설립을 보고하고 있다. 회사 구성원으로 “Kian Guan(建源), Yuan Tai Hung(元泰恒), Cheong Hing(昌興)” 세 곳을 들었다. 실제로는 건원 대신에 원흥(元興)이 들어갔다. 이때 상해지점은 원흥 상점이 건원계 회사여서 건원으로 보고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상해지점의 보고에 따르면 흥화공사는 오양패의 광둥 성영당의 전국 판매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수수료는 3%로 하되, 자바백당 판매가의 95%로 더 싸게 팔고, 최저 1담에 12원은 보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상해지점은 상해 방문 중의 풍예의 동향을 함께 보고하면서 중국은행 등 상해 은행들을 찾

54) Shanghai→Hong Kong, 1934.10.12.JSS 5-1-9.

55) Hong Kong→London, 1934.6.22. JSS 5-1-9.

56) Hong Kong→London, 1934.11.16. JSS 5-1-9.

57) Hong Kong→London, 1934.11.16. JSS 5-1-9.

아다니며 성영당창의 확대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⁵⁸⁾ 11월 26일의 홍콩지점 보고에는 더욱 상세한 내부 정보가 나온다. 홍화공사 대표로 원태항(Yuan Tai Hung, 元泰恒)의 Y. C. Sze가 풍예와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홍화공사 측은 독점판매권을 얻는 대신 성영당창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 원(상해 규은 기준)을 광동성에 연리 6%로 대출해주었다.⁵⁹⁾

그런데 홍화공사라는 독점판매조직의 등장에 홍콩당과 광동당의 판매 지분을 잃게 된 홍콩의 당행들이 11월 27일에 남경국민정부에 항의 전보를 치고 “무연당(無煙糖)”의 실체를 폭로하는 일이 생겼다. 홍콩 당행들은 남경국민정부 행정원 앞으로 “광동성의 설탕 통제 이후 백당의 대부분은 자바에서 사와서 국산당[土糖, native Sugar]으로 포장된 것들입니다. 지금 듣기로 상해상인들이 회사를 만들어 이 재포장한 양당(洋糖, foreign Sugars)을 중국 전국에 팔기로 했습니다.”고 전하면서 ‘토당(土糖)’과 ‘양당(洋糖)’을 제대로 구분해달라며 홍화공사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물었다.⁶⁰⁾

허나 며칠 지나지 않아 12월 4일에 홍콩 당행들은 전혀 다른 내용의 통전을 남경국민정부에 보냈다. “11월 27일에 통전을 보내, 홍화공사가 재포장한 양당을 중국에 독점 판매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물었는데, 죄송하지만 이 사실의 진실에 관해 실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멤버 중 몇 명이 최근에 성영공장을 조사했는데, 광동정부가 3개의 대규모 정당공장을 세우고 12월 초부터 농민들에게 압착할 사탕수수를 대량으로 주문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제당산업을 살리는 것임을 알게 되어 우리도 기뻐하며, 일전에 통전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광동성의 관리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는 내용이였다.

이 소동에 대해 상해지점은 상세한 내막을 런던본사에 설명해주었다. 남경, 상해 방문을 마친 풍예가 이 소식을 듣고 귀성길에 홍콩에 들려 홍콩당상들에게 만약 11월 27일 통전의 내용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면, 홍콩당상 길드의 모든 멤버들은 광주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바로 체포될 것이며, 또한 광주에 캔디와 설탕가루를 공급하는 홍콩상인들은 앞으로 대금을 못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다.⁶¹⁾

태고 홍콩지점의 관심은 광동당의 상해 진출을 통해 태고당이 현재 열세에 있는 화북,

58) Shanghai→Hong Kong, 1934.11.12. JSS 5-1-9.

59) Hong Kong→London, 1934.11.26. JSS 5-1-9. 1934년 환율 시세는 대략 상해 규은(規銀) 은원[大洋] 100원(元) = 광동성 화폐단위 호은(毫銀, 小洋) 130원(元) = 홍콩달러 91원(元, dollar) 전후였다. 참고로 1933년에 폐량개원(廢兩改元)으로 상해 규은 은량은 폐지되었는데, 1933년 상해 1량(兩)=상해 1.29원=1.23홍콩달러였다. 1930년대 화폐와 환율에 관해서는 강진아, 『1930년대 중국의 중앙, 지방, 상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제4편 참조.

60) Shanghai→London, 1935.12.7.JSS 5-1-9.

61) Shanghai→London, 1935.12.7.JSS 5-1-9.

만주 시장을 되찾을 가능성은 없을가에 쫓겨있었다. “광동성이 남경과 협의해서 설탕을 북쪽에 팔겠다는 계획은 예상 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광동성 성영공장의 생산력이 딸릴 때에, 그들이 “우리 정당을 특별히 포장만 한다면” 태고당의 판로를 북쪽으로 넓히는 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⁶²⁾

당시 태고는 난처한 입장에 있었는데, 11월 중순에 자바의 맥클레인 사가 자체 브랜드의 정제 소프트 슈가[Pandjie Refined Soft Sugar]를 중국에 팔아달라고 태고 측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맥클레인은 자바 원당(조당)의 최대 구매처인 태고와 척을 지고 싶지는 않았기에 “우리는 당신들의 특정(사실상 중국-인용자) 시장에 끼어들 생각은 없다”면서, 이미 자바 백당의 일종인 소프트 슈가가 중국 시장에서 대세인 마당에 우리 상품을 파는 것이 오히려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태고는 12월 5일에야 뒤늦게 답장을 보내는데, 맥클레인의 소프트 슈가(Pandjie sugars)를 “우리 시장”에서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⁶³⁾

결국 맥클레인은 다음 해 1935년 1월에 광동성정부를 위해 자바 백당 공급을 담당했던 펜트레스 사에 판매 대리를 맡겼던 것 같다. 펜트레스 사가 특별히 태고 홍콩지점에 자신들이 “맥클레인 설탕의 유일한 판매 대리인[sole selling Agents for the Maclaine Sugar Co.]”이 되었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판로 개척에 노력하던 페르시아 만 지역에서 우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쪽 정부가 설탕 전매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였다.⁶⁴⁾

경쟁이 격화되고 새 시장 개척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태고측은 그나마 판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광동성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1934년 12월 판매와 선적실적을 보면 7,439톤(123,988담)이었는데, 이는 1932년 1월 이래 최고 기록이었다. 물론 다가오는 춘절의 영향으로 수요가 커진 것도 있지만, 12월 판매실적 중에 900톤(15,000담)이 광동성정부의 설탕 전매 공급용으로 팔려나간 덕분이였다. 이런 상황에서 광동당이 상해까지 진출한다고 하니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 연구와 공식 기록에는 1935년부터 광동당이 상해에 진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스와이어 문서를 보면 1934년 12월 27일에 광동당 800포가 상해에 도착했고, 12월 말에 2천포가 광주에서 상해로 선적되었다.⁶⁵⁾

62) Hong Kong→London, 1934.12.7. JSS 5-1-9.

63) Hong Kong→London, 1934.12.7., Maclaine Sugar Company, Ltd.P. Lawrence. Director. Sourabaya→B&S Hong Kong, 1934.11.19. B&S Hong Kong→Maclaine Sugar Company, Ltd. P. Lawrence. Director. Sourabaya. 1934.12.5.JSS 5-1-9.

64) Hong Kong→London, 1935.1.4.JSS 5-1-10.

65) Hong Kong→London, 1935.1.4.JSS 5-1-10.

태고당 설탕 매관 C.P.Wong은 풍예의 초청으로 1935년 1월 5일 신조, 시두 두 성영공장의 공식 개업식에 참여했다.⁶⁶⁾ 1월에는 새롭게 성립한 상해당업합작공사(上海糖業合作公司, The Shanghai Sugar Merchants Joint Syndicate) 이야기가 스와이어 문서에 자주 등장한다. 태고 역시 건원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광동 측과 이미 특수 관계에 있는 만큼 태고 측은 특별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2월이 되면 1차로 수입된 800포의 광동당이 상해에서 다 팔린 것을 사진까지 넣어서 보고했다.⁶⁷⁾ 아마 내심은 간간하게 굴던 런던본사가 1월 중반에 “광동 전매” 항목 하에 “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판매를 한 것을 특기하게 되어 기쁘다(We are glad to note considerable sales to these people)”라고 읊조린 바였을 것이다.⁶⁸⁾

사실 중국에서 자유시장이 와해되어 가는 와중에, 광동 전매와 이에 촉발된 전국적 설탕 전매를 또 하나의 기회로 주목했던 것은 태고당만이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24만 톤(400만 담)의 설탕 재고가 쌓여있었다. 일본 설탕 수출상 등 이권단체들은 중국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일본당을 전매에 쓰게 하라고 일본정부에 요청했다.⁶⁹⁾ 태고는 도쿄 마이니치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일본 정당계의 주장을 런던에 보고하기도 했다. 일본 당업계에 따르면, 현재 남경국민정부 쿼터 시스템은 30%는 일본에서, 60%는 네덜란드(자바)에서, 나머지 10%를 여러 각 나라에 할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33년 중국의 설탕 수입은 자바당 52%, 홍콩당 22%, 일본당 24%이지만, 이 해는 반일보이콧운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본당 판매가 저조했던 특수상황이므로, 30% 할당은 너무 작다. 자바에까지 특사를 파견해서라도 반드시 일본이 60%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직 3월 단계에서 일본 정당계는 중국 설탕전매가 일종의 쿼터제가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반대하기 보다는 지분을 많이 획득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고, 일본에 더 많은 몫을 보장한다면 전매제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⁷⁰⁾

5월 23일에 홍콩지점에서 상해지점으로 보낸 편지는 여러모로 중요하다. 이때는 설탕전매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중화당업공사의 주식 공모 공고가 신보에 실리기 이틀 전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5월 시점에 풍예는 남경국민정부의 양해로 원당용으로 자바당 5천 톤의 수입관세를 50% 할인받는 데 성공했다. 풍예가 관할하는 광동성 설탕전매기구 성영물산경리처는 1934년 6월 1일 전매 실시 이래로 자바백당 21,300톤, 자바 적당 2,500톤, 홍콩 당형

66) C. P. Wong→Hong Kong, 1935.1.7.JSS 5-1-10; Hong Kong→London, 1935.1.11., 1.18.JSS 5-1-10.

67) Hong Kong→London, 1935.2.1. JSS 5-1-10.

68) Hong Kong→London, 1935.1.11., JSS 5-1-10; London→Hong Kong, 1935.1.15.JSS 5-1-10.

69) Shanghai→Hong Kong, 1935.3.29.JSS 5-1-10

70) Hong Kong→London, 1935.3.30.JSS 5-1-10,

에게서 브라운 캔디를 상당량 구매했으며, 태고의 각 등급 설탕을 3,150톤(52,500담) 구입했다. 이 외에 제1군 군간처(軍壘處, 군 재원 공급을 위한 직영 기관을 통솔하는 군 부서) 관할인 해양당창이 독자적으로 자바 백당을 1만 톤 수입했으며 모두 무관세였고, 마지막 선적은 1934년 12월 중순에 이뤄졌다. 홍콩지점은 이 설탕들은 모두 재포장되어 광둥, 광서에서 다 소비되었으며 공장에서 원료로 가공하거나 타지로 재수출하는 것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자면 광둥성정부와 풍예는 성영공장이 가동한 1934년 12월 말 이전에 대량의 설탕을 사실상의 “관에 의한 밀수”로 대거 반입하여 광둥, 광서성의 설탕 전매에 공급해서 수익을 얻었고, 공장이 가동하여 “진짜” 성영당을 생산하게 되자 남경국민정부의 허가를 얻어 상해와 전국으로 판매하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광둥당은 “진짜” 국산당이므로, 원당에 대해 50% 관세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남경국민정부 역시 전국적 설탕전매를 염두에 두고 공급선이 될 광둥 측에게 이를 허가해주었을 것이다. 이 타협을 이끌어 낸 것은 1934년 11월 풍예의 남경, 상해 방문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성영공장이 착즙을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남경국민정부는 6천 톤(10만 담)의 진짜 광둥 제조 설탕을 수입하기로 협의했다. 제1 군간처의 해양당창이 생산한 96톤(16,000담)의 백당, 540톤(9천 담)의 적당을 우선 선적했는데, 이 양은 성영공장이 그때까지 생산한 거의 전량이라고 한다. 공장이 생산한 설탕은 광둥 현지에서는 잘 안 팔렸고, 사탕수수와 원료당이 될 토당의 부족으로 해양당창은 가동을 중단해야했다. 결국 현지 토당을 원당으로 삼아 정제하는 것은 6월에 시작하고, 일단 대체 원당으로 자바당을 수입해서 가공하기로 하고, 원당 5천 톤을 건원(建源)에서 구입했다는 것이다.⁷¹⁾ 이상의 태고 내부 문서를 참고하면, 상해에 수출된 광둥당이 모두 “무연당” 즉 국산 성영당으로 포장만 바꾼 수입당이라는 일본 측과 홍콩 상인들의 주장과는 좀 다르다.⁷²⁾ 후에도 홍콩지점은 런던본사에 우리가 광둥 측에 관 소프트 슈가는 모두 남중국에서 소비되었으며 어느 것도 토당임을 가장하여 북쪽으로 재이출되지 않았다고 잘라서 말하고 있다.⁷³⁾

따라서 5월 14일 런던본사는 중국에서 전매와 할당제가 실시되면 일본에 비해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탕 전매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12개 양행이 연명으로 반대 운동을 할 때 태고양행은 반대파의 중요한 일원이었다. 그 이유

71) Hong Kong→Shanghai, 1935.5.23. JSS 5-1-10.

72) 히라이는 1935-36년에 걸쳐 상하이에서 판매된 광둥당을 9,600톤(16만 담)으로 보고, 이중 성영당은 10만 담 가량이고, 나머지 6만 담은 광둥성정부가 재포장한 자바백당, 즉 “무연당”이라고 보았다(平井, 앞의 책, 119쪽).

73) Hong Kong→JSS London, 1936.6.12, JSS 5-1-10. “All the Soft Sugar which we have sold to the Monopoly has been for consumption in South China and we are reasonably certain that none has been re-shipped northwards in the guise of Native Sugar.”

는 맥클레인에 있었다. 런던본사는 6월 21일에는 입장을 바꾸어 맥클레인과 같이 행동하자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पै가 없다고 정리를 했다.⁷⁴⁾ 맥클레인은 자바 원당을 공급하는 태고의 최대 파트너였고, 자바당 판매를 두고 건원(建源)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전매제 실시가 자바당 판매에 유리할지는 몰라도 그 공급이 건원(建源)에 집중된다면 맥클레인이거나 네덜란드 정부의 자바당 공급기관인 니바스(NIVAS)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태고 역시 말레이와 싱가포르에서는 테이트 사(Tate & Lyle)의 영국 정제당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건원과 줄곧 경쟁 관계에 있었다.

3) 양광사변 이후의 광동성 제당업

전국적 설탕 전매의 시도는 무기한 연기가 되었지만 광동당의 상해 이출 및 태고와 광동성의 합작은 계속되었다. 7월에 풍예는 C.P.Wong을 통해 태고 측에 광동성영공장에서 생산한 적당을 원당으로 구입해서 가공하자고 제차 제의하였다.⁷⁵⁾ 비록 광동성의 부정부패와 생산 원당의 떨어지는 질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지만, 태고는 계속 이 제안을 검토 중이었다. 1936년 4월에 가서는 광동 원당-홍콩 정당의 라인 구축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달하고 있었다.⁷⁶⁾ 이미 자유시장이 소멸 직전인 상황에서 관세의 높은 벽을 넘기 위해서 이 결합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만 전제는 남경국민정부에게 광동 조당을 정제한 태고당을 “국산당”으로 인정받아야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했다. 태고당 입장에서는 그 점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상 태고당을 팬트리히 사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몰라도, 본격적인 광동성정부와의 합작은 유보하는 편이 현명했다.⁷⁷⁾ 그 와중에도 태고당방은 1935년 9월 중국과 만주 전체에 1만 9천 담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486톤(8,100만 담)이 광동성정부에 판 것이었고, 600톤(1만 담) 이상을 10월 중에 배달할 예정으로 있었다.⁷⁸⁾

양광사변이 일어나기 열흘 전쯤인 1936년 5월 22일에 홍콩지점은 광동성이 여전히 남경국민정부의 관세 정책 밖에 있으며, 지난 해(1935년) 좌절되었던 전국적 설탕 전매가 다시

74) London→Hong Kong, 1935.5.14., 6.21., JSS 5-1-10.

75) Hong Kong→London, 1935.7.26. JSS 5-1-10.

76) Hong Kong→London, 1936.4.24., JSS 5-1-10-6. “Conclusions. On all the above general grounds, therefore, we reach the conclusion that everything possible should be done to encourage the Kwangtung Mills to send us their Browns for refining.”

77) 위의 각주와 같음. “For some reason, of which we are not aware, the Kwangtung Government are not at present prepared to approach Nanking in the matter unless they are reasonably assured of the latter agreeing to their request that Kwangtung Sugar refined by the T.S.R. should not lose its native status.”(강조는 인용자)

78) Hong Kong→London, 1935.10.11. JSS 5-1-10.

금 재론되고 있다고 정황을 전했다.⁷⁹⁾ 그러나 양광사변이 일어났고 신속하게 진압되는 바람에, 광동성은 드디어 5년여 만에 남경국민정부에 “접수”되게 되었다. 홍콩지점은 풍예가 9월 11일에 처형된 뒤 Liu Wei Chirk이라는 인물이 9월 5일 신규 임명되어 성영물산경리처를 맡고 있으며, 진제당 하야 후 새로 광동성 군권을 장악한 여한모(余漢謨)가 자바화상 건원을 흥화공사 이름으로 동완, 혜양 두 군부 제당창의 총판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배분은 건원이 2할, 군부가 8할이었다고 한다.⁸⁰⁾

8월에 속속 새로운 관리 교체가 이뤄지는 가운데 태고 홍콩지점은 광동성의 현 상황을 전하면서, 원당이 진짜 국산이라면 그 원당을 재료로 “외국 땅”(즉 홍콩)에서 정제한 설탕도 국산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⁸¹⁾ 때마침 새로 바뀐 광동성정부에서 먼저 연락을 주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10월의 일이었다. 홍콩지점은 예전 풍예처럼 이번에는 광동성 재건위원회(the Commissioner of Reconstruction in Canton)가 똑같은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태고 측은 현재 규정으로는 광동성 원당을 가공해서 정당을 생산해도 중국 영토에 수출하면 “국산의 지위(native status)”를 잃어버리고 수입세를 내야하므로 손해라고 답했다. 남경국민정부 측은 비공식적이지만 “관세의 장벽은 넘어설 수 있다(the tariff obstacle could be overcome)”고 원칙적으로 동의해 주었다고 한다.⁸²⁾ 이것만 보자면 사실상 광동성정부의 역할을 남경국민정부가 맡은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 게다가 새로운 광동성정부는 광동성의 설탕 전매를 유지시켰다. 11월에 와서야 성내 제당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전매제를 폐지하기는 했는데, 태고 홍콩지점은 상인들이 반발해서 없애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옛날과 똑같다고 논평했다. 민간 상인들의 설탕 수입을 제도적으로 어렵게 해놓아서, 결국은 성영물산경리처에게서 설탕을 사야해, 전매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⁸³⁾

한편 광동 원당-홍콩 정제안이 계속 “고려중”으로 진전이 없는 가운데, 태고양행 설탕부매관인 C.P.Wong은 광동성정부와 두 외국 자본(Messrs. I.G. Farbenindustrie와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China Ltd.) 사이에 중의합작의 화학비료공장 투자협약서가 체결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아예 태고양행도 이와 같은 공동 투자 방식으로 광주에 정제당 공장을 신규로 짓자는 제안을 하였다.⁸⁴⁾ C.P.Wong은 “중국이 분열되고 광동이 반독립 상태였을 때에는(when China was disunited, with Kwangtung in a semi independent state)” 이러한 투자가

79) Hong Kong→London, 1936.5.22., JSS 5-1-10-6

80) Hong Kong→London, 1937.4.16. JSS 5-1-11.

81) Hong Kong→London, 1936.8.14, JSS 5-1-10-8, “Raw Sugar being a genuine native product.....Sugar Refinery Sugar refined from it in a foreign territory should not lose its native status.”(강조는 인용자)

82) Hong Kong→London, 1936.10.16, JSS 5-1-10-8.

83) Hong Kong→London, 1936.11.20., JSS 5-1-10-8.

84) Hong Kong→London, 1936.11.27., JSS 5-1-10-8.

현실성이 없지만, 이제는 국가 통합이 이뤄졌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니 중국에 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회사도 그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본 수출업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자신들을 구축할 것(if they do not move quicker Japanese exporters will beat them out of the China market)”을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명백히 태고 측을 자극하여 투자를 유도하려는 언사이다. 그러나 홍콩지점은 신규 투자에 부정적이었다.⁸⁵⁾

정권이 바뀌어도 광둥성정부는 계속 태고당을 예전 루트 그대로 주문했고, 태고당방은 11월 초에도 정당 1,000포(1,350담, 81톤)를 팔았다. 이듬해 1937년 2월 초는 500포(40.5톤, 675담)를 팔았는데, 확실히 양이 줄고 있다.⁸⁶⁾ 또 4월 쯤에는 광둥성 설탕 전매도 12월의 1차 규제 완화를 거쳐 상인들에게 설탕을 수입할 수 있는 자율권을 인정해주었고, 3월 1일부터 설탕에 대한 판매 통제가 사라졌다. 재건 위원회는 대신 설탕 1담에 재건펀드 1원의 재건기금세와 0.6원의 농업보호세 딱 두 가지 세금만 거두는 것으로 바꾸었다. 세금 징수는 상인길드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결국 설탕 제당업자, 당행과의 빅딜을 통해 전매를 폐지하는 대신 세수를 신규로 확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렇다고 성정부가 전매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닌지, 4월에도 여전히 새롭게 전매에 상당하는 통제가 실시된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다.⁸⁷⁾

성정부가 광둥 원당-홍콩 정제 라인과 전매제 실시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상인과 타협한 데에는 성영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사정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1937년 7월 2일 태고 홍콩지점의 보고는 당시 성영공장의 상황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광둥성에서 백당을 생산하게 되면 태고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성영제당장은 기본적으로 적당 생산에 특화되어 있고, 두 곳의 스크다 사가 건설한 제당장은 백당 생산 능력이 있으나 정제당까지 생산하기는 힘들었다. 더구나 정권 교체 과정에서 부정부패는 물론이요 제대로 공장 설비를 돌보지도 않고 관청이 간섭만 하는 바람에 생산의 질은 더욱 떨어졌다. 풍예를 비롯해 인원을 싹 바꾸면서 사실상 공장은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토당의 약진이었다. 지난 진제당 정권의 당업 건설 기간 동안 토당을 생산하는 민간 제당업자들은 높은 설탕 통제가격과 관세 보호로 크게 발전했다. 정부의 장려로 사탕수수 재배농가도 대폭 늘었다. 전매가 폐지되면서 사탕수수 강제 수매도 폐지되자, 농가들은 토당을 생산하는 민간 제당장에 더

85) Hong Kong→London, 1936.11.27., JSS 5-1-10-8 및 첨부 “Proposal for the Erection of a Sugar Refinery in the Province of Kwangtung”.

86) Hong Kong→London, 1936.12.11., 1937.3.7., JSS 5-1-10-8.

87) Hong Kong→London, 1937.4.16. JSS 5-1-11.

좋은 값을 받고 사탕수수를 넘겼다. 이것이 성영제당창의 원료 공급을 더욱 난항에 빠뜨렸다.⁸⁸⁾ 종합해서 보자면, 풍예가 이끌었던 광동성 제당업 부흥은 실제로 광동성 제당업을 부흥시켰으나, 전매라는 철완의 규제가 없이는 원료의 지속적 대량 공급이 필요한 근대적 제당업은 버티기 힘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를 쓴 지 며칠 되지 않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이 발발하고, 중일 전면전쟁이 터졌다. 전시 재원 확보를 위해서 1938년 2월 광동성은 설탕 전매를 실시하는데 거의 과거 시스템과 비슷했다. 다만 10명의 영운상이 아니라 한 명의 독점 상인이 광동성 전체의 설탕 판매를 책임졌다. 보증금은 15만 원으로 더 많아지고, 판매 쿼터는 과거에 매달 5만 6천 담이던 것이 2만 500담으로 낮아져 현실화되었다. 대신 판매가의 3%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새로 임명된 독점 상인은 1935년 6월 설탕 전매 실시 때에 처음 임명된 10명의 영운상 중 한 명인 Iu Chak Fong이었다.⁸⁹⁾ 그렇지만 광동 성영제당창과 설탕 전매에 대한 마지막 소식은 4월 초 일본 공군이 성영제당창을 집중 폭격하여 세 곳 내지 그 이상의 제당창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고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다.⁹⁰⁾

맺음말

지금까지 자유 시장을 지향하던 다국적 자본인 홍콩 태고당방이 중국 시장의 “비시장화”, 즉 국가 통제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의외로 세계대공황이라는 전례 없는 불경기 상황에서 태고 당방은 적극적으로 “비시장적” 통제, 전매에 적극 동참하였다. 태고당방은 가장 경영이 어려웠던 1934년, 1935년에 광동성 제당창 건설과 설탕 전매에 깊게 관여하면서 원래 시장이 거의 없었던 광동성, 광서성에 상당량의 태고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었다.⁹¹⁾ 1935년의 광동당의 상해 진출과 전국적 설탕 전매 시도에 대해서도

88) Hong Kong→London, 1937.7.2, JSS 5-1-11.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가 된다면 이 공장들은 얼마든지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we must take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mills are in existence now, and in proper hands are capable of a large production of Sugar).

89) Hong Kong→London, 1938.2.25. JSS 5-1-12. C.P.Wong→Hong Kong, 1938.2.21.JSS 5-1-12. “Abstract of Terms of the New Sugar Monopoly in Kwangtung.” 1935년 당시 보고에서는 Shing Fat공사(公司)의 U Chik Fong으로 기재됨(C.P. Wong→Hong Kong, 1934.8.23. JSS 5-1-9).

90) Hong Kong→London, 1938.4.8. JSS 5-1-12. “The Japanese have recently concentrated on bombing Kwangtung Government factories and it is reported that three or the Sugar factories have been more or less badly damaged and put out of action.”

91) 태고당방의 이윤은 1923년 최고 39만 300파운드로 정점을 찍은 뒤, 1925년 5.30운동과 홍콩 광

겉으로는 일본, 자바 등과 협조하여 전매 반대에 앞장섰으나 물밑으로는 전매를 통해 일본당의 덤핑 공세를 이기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광동성으로의 판매 역시 간접 판매를 유지하고 이후 광동성에 대한 직접 투자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어디까지나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중국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홍콩지점과 상해지점의 시각이 크게 작용했다. 덤핑 시장과 보호 관세로 자유 경쟁의 기제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든 중국 시장에서 홍콩당이 우위를 누릴 만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있다면 전매제 하에서의 보다 강력한 정부 보호나 광동 원당-홍콩 태고 정제 라인을 정부 보호 아래에 보장 받는 것이었는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따라서 태고양행의 대체전략은 태고당도 보호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영제국 지역으로의 시장 이전이었다. 물론 그곳에서도 자바당, 영국 본국의 정당 등 경쟁자가 많았지만 꾸준한 정치적 호소를 통해 같은 대영제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를 해주는 지역을 집중 공략하였다. 대표적인 성공을 거둔 곳이 싱가포르와 말레이 연방이다. 그 결과 태고당의 주력 시장 분포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1933년부터 1937년까지 태고당방의 벌크(bulk) 총판매량(분량이 적은 소매 포장상품은 제외함)은 6만 7,308톤(1,120,413담), 8만 2,965톤(1,382,760담), 5만 3,670톤(894,501담), 7만 9,073톤(1,301,226담), 6만 1,418톤(1,023,641담)의 추이를 보였다. 이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outside ports)의 비중은 1933년 15%에서 1934년 28%, 1935년 25%, 1936년 30%, 1937년 44%까지 크게 늘어났다.⁹²⁾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출로를 모색했으나 대공황기 전반적인 제당업계의 불황 속에서 태고당방은 현상 유지에 급급했다. 1938년 전반기 중일전쟁 초기의 전시 특수로 잠깐 판매가 호조를 보이기도 했으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판매는 더욱 떨어졌다. 1941년에 홍콩이 일본군에 함락되면서 태고당방은 1945년까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주의해야할 것은 태고당방의 수익률 변화로 단순하게 태고양행의 설탕 사업 수익을 따지면 안 된다는 점이다. 그간 제당업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점은 대부분의 거대 제당자본은 제당업 공장도 보유하지만 설탕 수출입무역을 경영하는 무역자본이기도 하다는 점

주 대과업, 반영보이콧의 영향으로 고작 2,825파운드로 하락에 떨어졌다. 이후 1932년과 1933년에 각각 3만 6,565파운드, 3만 3,600파운드 정도로 회복하다가, 1934년 다시 1만 6,273파운드로 떨어졌고, 1935년 8만 424파운드로 다소 회복되었다(Table 7.3. Accounts of the Taikoo Sugar Refinery, 1884-1935 Source: Taikoo Sugar Refinery, Account Books (JSSV 4/1-4/3); London A/c, Nos 1 and 2 (4/4-4/5), Shinya Sugiyama, "Marketing and Competition in China, 1895~1932", S. Shinya Sugiyama and Linda Grove ed., Commercial Networks in Modern Asia, Routledge, 2001, 146-147).

⁹²⁾ Hong Kong→London, 1937.4.16., 1938.4.22., JSS 5-1-11.

이다. 미츠이와 미즈비시 역시 제당창을 보유하고 일본당을 자신의 선박 라인과 상사 판매망을 통해 보급했으나, 자바당 수입 판매의 유력 상인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건원 같은 경우도 자바의 보유 제당창에서 생산한 자바 원당과 자바 백당을 아시아 시장에 수출했지만, 영국정당, 미국정당, 쿠바당을 가리지 않고 싼 가격에 수입하여 시장이 있는 아시아 각 항구에 판매했다. 또 원당 공급자였던 맥클레인은 자바백당과 소프트 슈가 시장이 중국에서 커지자 독자 브랜드로 소프트 슈가를 중국 시장에 직수출하기로 하고 태고양행에 그 판매를 위탁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태고는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팬트리히로 판매권이 가려하자 결국 맥클레인의 소프트 슈가의 중국 시장 판매 대리 업무를 수락하게 된다. 비록 태고당방의 상품과 경쟁을 하게 되겠지만 판매대리 수익을 놓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분석에서는 무역과 산업 부분의 이익 배치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스와이어 당안을 통해 기존의 광동성의 제당업 건설과 설탕전매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가능하다. 우선 “무연당”에 대한 평가이다. 남경국민정부의 고관세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관에 의한 밀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 설탕 전매제 하에서 광동성내에 유통되는 모든 설탕은 “오양패”라는 브랜드 하에서 유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성영당이 가동되기 전에 광동성과 광서성에 공급할 설탕을 재포장하는 것은 풍예와 광동성정부로서는 공급 차원에서 자기 합리화가 되었다. 그러므로 전국적 설탕전매를 기획할 때, 상해당업합작공사도 국산당으로의 자급을 목표로 하지만 생산이 충분해 질 때까지는 자바당 등 외국당도 함께 수입해서 통합 관리한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1935년 말에 성영공장이 가동되게 되자, 그 설탕을 가지고 상해를 통해 전국 시장에 도전하려고 했다는 구도 역시 이해가 된다. 그리고 상해에 이출한 설탕이 “무연당”이었다는 세간의 평가 역시 스와이어 당안을 참고하자면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광동성 제당업 부흥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성영제당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설탕 전세 등 고관세의 실시(1932년), 개량종자의 무상 배포, 사탕수수 경작에 대한 정부 보조 등의 조치가 결국 민간의 제당업을 크게 부흥시켰다는 점이다. 1932년 광동성 토당의 성외 이출은 1932년 2만 6,495톤(441,592담)에 불과했는데, 1933년은 4만 9,545톤(825,763담), 1934년은 7만 3,092톤(1,218,212담)으로 대폭 증가했다.⁹³⁾ 1935년 이후의 통계는 정확한 수치가 없지만 1938년에 태고 홍콩지점은 광동성 토당이 크게 번성하여 태고당 판매가 대폭 줄었다고 보고한 것을 참고하면 전매 폐지와 설탕 수입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토당은 계속해서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⁹⁴⁾ 반면에 성영제당창은 남경국민정부의 접수 이후 경영 부진

⁹³⁾ Hong Kong→London, 1935.5.31. JSS 5-1-10.

⁹⁴⁾ Hong Kong→London, 1938.4.22 JSS 5-1-12.

에 시달렸고, 그 재건에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논문투고: 2020.02.21; 심사완료: 2020.03.27; 게재확정: 2020.03.27)

주제어: 설탕, 광둥성, 설탕 전매, 태고당, 자바당, 일본당

关键词: 糖, 广东省, 砂糖专卖, 太古糖, 爪哇糖, 日本糖

Key Words: sugar, Guangdong, sugar monopoly, Taikoo sugar, Java sugar, Japanese sugar

참고문헌

1. 사료

“Kuangtung Government Sugar-factory”, *Chinese Economic Journal and Bulletin Vol. 18 No. 2*, 1936.

John Swire & Sons Ltd Archive, London University SOAS Library Special Collections.

日本糖業連合會, 『滿州國・中華民國の砂糖貿易並に需要量に關する統計的一考察』, 1938.

日本外務省文書 S5160-25 廣東省の部(한국 국회도서관 소장 마이크로필름).

日本外務省文書 S5100-3 砂糖の部(한국 국회도서관 소장 마이크로필름).

陳昭宇, 『廣東糖業與馮銳』, 1937.

實業部中國經濟年鑑編纂委員會編, 『中國經濟年鑑』中, 商務印書館, 1934.

2. 연구서 및 연구논문

강진아, 「1930년 중국의 경제개발에서 나타나는 성과 중앙-“廣東糖”의 상해진출과 남경정부」, 백영서 편, 『중국근현대사의 재조명1』, 지식산업사, 1999.

강진아, 「20세기초 동아시아 시장과 중국 제당업」, 『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질서의 해체』, 청어람미디어, 2004.

강진아, 『1930년대 중국의 중앙, 지방, 상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강진아, 「내전기 광동성의 성영공업 재건정책과 송자문」, 『중국근현대사연구』 24, 2004.

강진아, 「근대 동아시아 설탕 시장과 홍콩 제당업 - 상인 디아스포라는 지속 가능한가?」, 『역사비평』 봄호, 2020.

강진아,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사탕의 유통구조와 변동-조선화상 동순태호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52, 2011.

이은희, 「근대 한국의 제당업과 설탕 소비문화의 변화」, 2012년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은희, 『설탕, 근대의 혁명』, 지식산업사, 2018.

정영구, 「1864~1930년 중국의 설탕유통연구, 2016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정영구, 「1902~1930년 중국 백설탕시장의 성격-」, 『중국사연구』 121, 2019.

정영구, 「1864~1904년 중국 설탕시장의 성격 - 『中國舊海關史料』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1, 2015.

정영구, 「개항과 전통시장 - 1880년대 이전 중국의 설탕시장 -」, 『중국근현대사연구』 76,

2017.

- 정영구, 「전통중국의 설탕-면화교역과 근대세계체제－」, 『동양사학연구』 139, 2017.
- 姜玆亞, 「1930年代廣東陳濟棠政權の製糖業建設」『近きに在りて』 30, 1996.
- 杉山伸也, 『日英經濟關係史研究 1860~1940』,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 平井健介, 『砂糖の帝国 : 日本植民地とアジア市場』, 東京大学出版会, 2017.
- Emily M. Hill, *Smokeless Sugar: The Death of a Provincial Bureaucrat and the Construction of China's National Econom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2001.
- G. Roger Knight, “Exogenous Colonialism: Java Sugar between Nippon and Taikoo before and during the Interwar Depression, c. 1920-1940.”, *Modern Asian Studies*, Vol. 44, No. 3, 2010.
- Robert Bickers, *China Bound : John Swire & Sons and Its World, 1816-1980*, Bloomsbury Business, 2020.
- Aleš Skřivan, “Škodovy závody a výstavba cukrovarů v Číně před druhou světovou válkou”(Skoda Works and the Construction of Sugar Refineries in China Before World War II), *LCAŘ 127, No. 11*, November 2011.
- Ales Skrivan Jr. “Czechoslovak Export of Arms to China in the Interwar Period”. *ÖT KONTINENS 1*, 2010.
- 姜玆亞, 「20世纪初的东亚市场和中國製糖業」, 『近代中國-經濟與社會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06.
- 姜玆亞, 「从朝鮮華商同順泰文書来看近代潮州糖品的流通」, 陈春声, 陈伟武 主编, 『地域文化的构造与播迁:第八届潮学国际研讨会论文集』, 中华书局, 北京, 2012.
- 吉原久仁夫 主编, 周南京 译, 『黄仲涵财团 : 东南亚第一企业帝国』, 中国华侨出版社, 1993.
- 莫应淮, 「英商太古洋行近百年在华南的业务活动与莫氏家族的关系」, 张仲礼·陈曾年·姚欣荣, 『太古集团在旧中国』, 上海人民出版社, 1991.
- 鍾寶賢, 『太古之道-太古在華一百五十年』,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2016.
- 蔡仁龙, 「黄仲涵家族与建源公司」, 『南洋问题』, 1983年1期, 1983.

<Abstract>

Politics of Taikoo Sugar Refinery Co. in Hong Kong against
Chinese Sugar monopoly during the 1930s
– Survival under the Great Depression –

Kang, Jin-A*

This paper analyses the reaction of Taikoo Sugar Refinery Co.(TSR) in Hong Kong, a leading sugar supplier in modern East Asia, to the governmental sugar monopoly of China, which was the largest market for TSR. TSR has suffered from the Great Depression and division of market by the Yen block in 1930s. Since 1929, China recovered tariff autonomy to protect the domestic sugar business with a high tariff on imported sugar, and planned to build modern refining factories to substitute the imports. But high tariffs have brought widespread smuggling, and the plan of building modern refineries was initiated by the warlord regime of Chen Ji-tang in Guangdong province ahead of Nanjing central government. The building of modern sugar was motivated not only by the protection of the domestic industry but also by the intention to secure financial revenue. Therefore,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refineries, Guangdong Provincial government adopted the sugar monopoly in its territory and Nanjing central government soon followed their suit. TSR kept close relationship with sugar monopoly in Guangdong through the Moks, a compradore family of Taikoo sugar and used Guangdong's sugar monopoly to tap into the South China market, where its products were weak. When the governmental sugar monopoly of the Nanjing central government was announced, TSR joined the opposition movement along with the Japanese sugar merchants and sugar wholesalers of Shanghai, but TSR actively sought to expand his stake through the Chinese sugar monopoly behind the scenes. At that time TSR has confronted with fierce competition with the Japanese sugar after losing Manchuria and Northern Chinese market. Thus, the collaborative plan that Guangdong produces the raw brown sugar and TSR refines it for sales in China, though first offered by Chen Ji-tang government, still remained effective before the outbreak of the 2nd Sino-Japanese War in 1937.

* Hanyang University